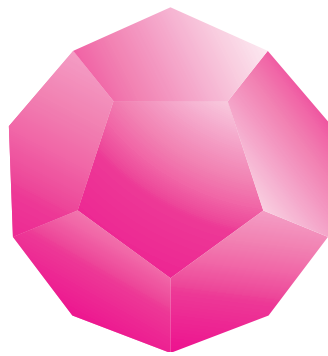


기술의 파괴효과



사탐 영역
사회·문화

사회·문화

해설

빠른 정답

I. 개념 파트

(1) 사회·문화 현상 vs 자연 현상

문항번호	정답	문항번호	정답	문항번호	정답	문항번호	정답	문항번호	정답
1	③	2	③	3	③	4	②	5	④
6	②	7	④	8	③	9	④	10	④
11	⑤	12	①						

(2)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

문항번호	정답	문항번호	정답	문항번호	정답	문항번호	정답	문항번호	정답
1	①	2	②	3	③	4	①	5	③
6	ㄷ, ㄹ	7	③	8	②	9	⑤	10	②
11	④	12	ㄷ	13	②	14	ㄷ, ㄹ		

(3) 사회·문화 현상의 연구 방법

문항번호	정답	문항번호	정답	문항번호	정답	문항번호	정답	문항번호	정답
1	⑤	2	④	3	④	4	①	5	ㄴ, ㄷ
6	④	7	③	8	ㄱ, ㄴ	9	③	10	②
11	ㄴ, ㄷ	12	③	13	ㄴ, ㄹ	14	④	15	⑤
16	④	17	ㄴ	18	②				

(4) 자료 수집 방법

문항번호	정답	문항번호	정답	문항번호	정답	문항번호	정답	문항번호	정답
1	②	2	④	3	③	4	④	5	⑤
6	③	7	⑤	8	②	9	⑤	10	②
11	①	12	④						

(5) 사회·문화 현상의 탐구 태도와 연구 윤리

문항번호	정답	문항번호	정답	문항번호	정답	문항번호	정답	문항번호	정답
1	③	2	③	3	③	4	②	5	ㄱ, ㄴ

(6) 사회화 & 지위와 역할

문항번호	정답	문항번호	정답	문항번호	정답	문항번호	정답	문항번호	정답
1	⑤	2	②	3	⑤	4	ㄱ, ㄷ	5	ㄴ, ㄹ
6	ㄴ, ㄹ	7	①	8	④	9	②	10	②
11	⑤	12	④						

(7) 사회 집단 및 사회 조직

문항번호	정답	문항번호	정답	문항번호	정답	문항번호	정답	문항번호	정답
1	④	2	⑤	3	⑤	4	⑤	5	⑤
6	⑤	7	ㄴ, ㄷ	8	⑤	9	⑤	10	②
11	ㄴ, ㄹ	12	⑤	13	②	14	④	15	⑤
16	③	17	ㄱ, ㄷ	18	④	19	③	20	①
21	①	22	ㄴ, ㄹ	23	①	24	③	25	③
26	①								

(8)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

문항번호	정답	문항번호	정답	문항번호	정답	문항번호	정답	문항번호	정답
1	ㄴ, ㄷ	2	②	3	ㄴ, ㄷ	4	②	5	④
6	ㄷ, ㄹ	7	ㄱ, ㄴ	8	ㄴ, ㄹ	9	ㄱ, ㄴ	10	ㄱ, ㄴ
11	ㄴ, ㄹ	12	ㄱ, ㄷ	13	ㄱ, ㄴ	14	ㄴ, ㄷ	15	ㄴ, ㄹ
16	ㄱ, ㄷ								

(9) 일탈 이론

문항번호	정답	문항번호	정답	문항번호	정답	문항번호	정답	문항번호	정답
1	⑤	2	ㄱ, ㄴ	3	②	4	②	5	①
6	①	7	①	8	①	9	①	10	④
11	③	12	③						

(10) 문화의 의미와 속성

문항번호	정답	문항번호	정답	문항번호	정답	문항번호	정답	문항번호	정답
1	ㄱ, ㄴ, ㄷ	2	①	3	③	4	③	5	ㄱ, ㄴ
6	②	7	ㄷ, ㄹ	8	⑤	9	③	10	②
11	⑤	12	②	13	①	14	①	15	③

(11) 문화 이해 태도 및 문화 이해의 관점

문항번호	정답	문항번호	정답	문항번호	정답	문항번호	정답	문항번호	정답
1	④	2	④	3	②	4	④	5	①
6	③	7	ㄱ	8	②	9	④	10	⑤
11	④	12	ㄱ, ㄴ	13	ㄱ, ㄴ	14	ㄱ, ㄴ		

(12) 현대 사회의 문화 양상

문항번호	정답	문항번호	정답	문항번호	정답	문항번호	정답	문항번호	정답
1	④	2	⑤	3	ㄴ, ㄷ	4	③	5	①
6	⑤	7	ㄴ, ㄷ	8	④	9	③	10	①
11	⑤	12	ㄴ, ㄷ	13	⑤	14	③	15	①
16	⑤	17	②	18	②	19	②		

(13) 문화 변동

문항번호	정답	문항번호	정답	문항번호	정답	문항번호	정답	문항번호	정답
1	ㄴ, ㄷ, ㄹ	2	④	3	③	4	①	5	②
6	⑤	7	⑤	8	③	9	③	10	①
11	⑤	12	①	13	④	14	⑤	15	①
16	⑤	17	⑤	18	③				

(14) 사회 불평등 현상의 이해

문항번호	정답	문항번호	정답	문항번호	정답	문항번호	정답	문항번호	정답
1	ㄷ, ㄹ	2	⑤	3	ㄴ, ㄷ	4	ㄱ, ㄷ	5	ㄷ, ㄹ
6	ㄱ, ㄴ	7	ㄱ, ㄴ	8	④				

(15) 다양한 사회 불평등 현상

문항번호	정답	문항번호	정답	문항번호	정답	문항번호	정답	문항번호	정답
1	①	2	③	3	③	4	③	5	⑤
6	③	7	⑤	8	①	9	ㄴ, ㄷ	10	③
11	②	12	ㄴ, ㄷ	13	②	14	⑤	15	①
16	ㄴ, ㄷ	17	②	18	⑤	19	⑤	20	④
21	②	22	ㄷ	23	⑤				

(16) 사회 변동 이론

문항번호	정답	문항번호	정답	문항번호	정답	문항번호	정답	문항번호	정답
1	ㄴ, ㄷ	2	①	3	①	4	④	5	ㄱ, ㄴ
6	②	7	ㄴ, ㄷ	8	ㄷ, ㄷ	9	①	10	③
11	ㄴ, ㄷ	12	ㄱ, ㄷ						

(17) 사회 운동

문항번호	정답	문항번호	정답	문항번호	정답	문항번호	정답	문항번호	정답
1	⑤	2	①	3	④	4	ㄷ, ㄷ	5	⑤
6	②	7	ㄱ, ㄴ	8	②	9	③	10	ㄴ, ㄷ
11	⑤								

(18) 현대 사회의 변화와 전 지구적 수준의 문제

문항번호	정답	문항번호	정답	문항번호	정답	문항번호	정답	문항번호	정답
1	①	2	⑤	3	②	4	②	5	①
6	ㄱ, ㄷ	7	②	8	①	9	④	10	⑤
11	⑤	12	⑤						

II. 문제 풀이법 파트

Chapter 1. 구분 유형

문항번호	정답	문항번호	정답	문항번호	정답	문항번호	정답	문항번호	정답
1	㉓	2	㉒	3	ㄱ, ㄴ	4	㉓		

Chapter 2. 개방형 문제 유형

문항번호	정답	문항번호	정답	문항번호	정답	문항번호	정답	문항번호	정답
1	㉕	2	㉔	3	㉕	4	㉒	5	ㄱ, ㄷ
6	㉓	7	㉕	8	ㄴ, ㄹ	9	ㄴ, ㄹ	10	㉕
11	ㄷ, ㄹ	12	㉕						

Chapter 3. 채점 및 카드 게임 유형

(1) 채점 유형

문항번호	정답	문항번호	정답	문항번호	정답	문항번호	정답	문항번호	정답
1	㉔	2	㉕	3	㉔	4	ㄱ, ㄷ	5	㉓
6	㉔	7	㉕	8	ㄱ	9	㉕	10	㉑
11	㉑	12	ㄴ, ㄹ						

(2) 카드 게임 유형

문항번호	정답	문항번호	정답	문항번호	정답	문항번호	정답	문항번호	정답
1	㉒								

Ⅲ. 표 파트

Chapter 1. 비율과 변화율

문항번호	정답	문항번호	정답	문항번호	정답	문항번호	정답	문항번호	정답
1	④	2	②						

Chapter 2. 기중평균

문항번호	정답	문항번호	정답
1	$x = 12\%, y = 13\%$	2	A 지역의 인구: 2,000명, A 지역의 (다) 제도 수급자 수: 68명

Chapter 3. 인구 부양비

문항번호	정답	문항번호	정답	문항번호	정답	문항번호	정답	문항번호	정답
1	④	2	ㄴ, ㄷ	3	⑤	4	⑤	5	④
6	③	7	ㄴ, ㄷ	8	④	9	③	10	②
11	⑤	12	④	13	ㄴ, ㄷ	14	②	15	③

Chapter 4. 사회 보장 제도

(1) 기중평균을 활용한 문제

문항번호	정답	문항번호	정답	문항번호	정답	문항번호	정답	문항번호	정답
1	⑤	2	②	3	②	4	⑤	5	④
6	④								

(2) 벤 다이어그램을 활용하여 푸는 문제

문항번호	정답	문항번호	정답	문항번호	정답	문항번호	정답	문항번호	정답
1	ㄱ, ㄷ	2	②	3	⑤	4	⑤		

(3) 일반 사회 보장 제도 문제

문항번호	정답	문항번호	정답	문항번호	정답	문항번호	정답	문항번호	정답
1	③	2	ㄱ, ㄷ	3	②	4	ㄴ, ㄷ	5	ㄴ, ㄷ

Chapter 5. 계층 이동

(1) 2022학년도부터의 출제 유형

문항번호	정답	문항번호	정답	문항번호	정답	문항번호	정답	문항번호	정답
1	⑤	2	ㄱ, ㄷ	3	ㄱ, ㄴ	4	④	5	②
6	④	7	ㄴ, ㄹ	8	ㄴ, ㄷ	9	⑤	10	④
11	③	12	⑤						

Chapter 6. 임금 및 성 불평등

문항번호	정답	문항번호	정답	문항번호	정답	문항번호	정답	문항번호	정답
1	ㄴ, ㄹ	2	③	3	①	4	ㄴ, ㄷ	5	③
6	ㄱ, ㄷ	7	⑤	8	④	9	①	10	③

Chapter 7. 빈곤 유형

문항번호	정답	문항번호	정답	문항번호	정답	문항번호	정답	문항번호	정답
1	③	2	ㄷ, ㄹ	3	ㄷ, ㄹ				

Part
01

개념 파트



Chapter

02 기출 문제

(1) 사회·문화 현상 vs 자연 현상

01 22학년도 6월 평가원 1번

정답 : ③

자연 현상	사회·문화 현상
㉠, ㉡	㉢, ㉣

〈선지 분석〉

- ① 자연 현상, 사회·문화 현상 모두 경험적 자료를 통해 연구할 수 있다.
- ② 자연 현상은 사회·문화 현상에 비해 보편성이 강하게 나타난다.
- ③ **자연 현상은 사회·문화 현상에 비해 인과관계가 분명하다.**
- ④ 자연 현상은 사회·문화 현상과 달리 확실성의 원리가 적용된다.
- ⑤ 사회·문화 현상은 자연 현상과 달리 가치 함축적이다.

02 22학년도 9월 평가원 1번

정답 : ③

자연 현상	사회·문화 현상
㉢, ㉣	㉠, ㉡

〈선지 분석〉

- ① 자연 현상은 사회·문화 현상과 달리 확실성의 원리를 따른다.
- ② 사회·문화 현상은 자연 현상과 달리 가치 함축적이다.
- ③ **사회·문화 현상은 자연 현상과 달리 개연성의 원리를 따른다.**
- ④ 사회·문화 현상은 자연 현상과 달리 보편성과 특수성이 공존한다.
- ⑤ 자연 현상은 사회·문화 현상에 비해 인과관계가 분명하다.

03 22학년도 수능 1번

정답 : ③

자연 현상	사회·문화 현상
㉠, ㉡	㉢, ㉣

<선지 분석>

- ① 사회·문화 현상은 자연 현상과 달리 특수성이 나타난다.
- ② 자연 현상, 사회·문화 현상 모두 보편성이 나타난다.
- ③ **사회·문화 현상은 자연 현상과 달리 가치 함축적이다. 한편, 자연 현상은 몰가치적이다.**
- ④ 자연 현상은 사회·문화 현상에 비해 인과 관계가 분명하다.
- ⑤ 사회·문화 현상은 개연성의 원리가, 자연 현상은 필연성의 원리가 작용한다.

04 23학년도 6월 평가원 1번

정답 : ②

자연 현상	사회·문화 현상
㉢, ㉣	㉠, ㉡

<선지 분석>

- ① 사회·문화 현상은 자연 현상과 달리 개연성의 원리가 적용된다.
그렇지만, ㉠과 ㉡ 모두 사회·문화 현상이므로 해당 선지는 틀렸다.
- ② **사회·문화 현상은 자연 현상과 달리 가치 함축적이다.**
- ③ 자연 현상, 사회·문화 현상 모두 인과 관계가 나타난다.
- ④ 자연 현상, 사회·문화 현상 모두 보편성이 나타난다.
- ⑤ 자연 현상, 사회·문화 현상 모두 경험적 자료로 연구할 수 있다.

05 23학년도 9월 평가원 1번

정답 : ④

자연 현상	사회·문화 현상
㉠, ㉡	㉢, ㉣

〈선지 분석〉

- ① 자연 현상은 사회·문화 현상과 달리 몰가치적이다.
그렇지만, ㉠과 ㉡ 모두 자연 현상이므로 틀렸다.
- ② 사회·문화 현상은 자연 현상과 달리 특수성이 나타난다.
- ③ 자연 현상은 사회·문화 현상과 달리 인과 관계가 명확하다.
- ④ **자연 현상은 사회·문화 현상과 달리 확실성의 원리가 적용된다.**
- ⑤ 자연 현상은 사회·문화 현상과 달리 존재 법칙의 지배를 받는다.

06 23학년도 수능 1번

정답 : ②

자연 현상	사회·문화 현상
㉠, ㉢	㉡, ㉣

〈선지 분석〉

- ① 자연 현상과 사회·문화 현상 모두 인과 관계가 나타난다.
- ② **사회·문화 현상은 자연 현상과 달리 가치 함축적이다.**
- ③ 사회·문화 현상은 자연 현상과 달리 개연성의 원리가 적용된다.
- ④ 자연 현상과 사회·문화 현상 모두 보편성이 나타난다.
- ⑤ 자연 현상은 사회·문화 현상과 달리 존재 법칙의 지배를 받는다.

07 24학년도 6월 평가원 1번

정답 : ④

자연 현상	사회·문화 현상
㉠, ㉡	㉢, ㉣

〈선지 분석〉

- ① ㉢과 같은 사회·문화 현상은 ㉠과 같은 자연 현상과 달리 가치 함축적이다.
- ② ㉣과 같은 자연 현상이 ㉢과 같은 사회·문화 현상에 비해 인과 관계가 명확하다.
- ③ ㉣과 같은 자연 현상과 ㉣과 같은 사회·문화 현상 모두 보편성이 나타난다.
- ④ **㉣과 같은 사회·문화 현상은 ㉠과 같은 자연 현상과 달리 개연성의 원리가 적용된다.**
- ⑤ ㉠, ㉡과 같은 자연 현상과 ㉢, ㉣과 같은 사회·문화 현상 모두 경험적 자료로 연구할 수 있다.

08 24학년도 9월 평가원 1번

정답 : ③

자연 현상	사회·문화 현상
㉡, ㉢, ㉣	㉠, ㉢

〈선지 분석〉

- ① ㉠과 같은 사회·문화 현상은 가치 함축적이다.
- ② ㉢과 같은 사회·문화 현상은 존재 법칙이 아니라 당위 법칙이 적용된다.
- ③ **㉡과 같은 자연 현상은 확실성의 원리가 적용된다.**
- ④ ㉢과 같은 자연 현상은 인과 관계가 분명하다.
- ⑤ ㉣과 같은 자연 현상은 특수성이 존재하지 않는다.

09 24학년도 수능 1번

정답 : ④

자연 현상	사회·문화 현상
㉠, ㉡, ㉢	㉣, ㉤

〈선지 분석〉

- ① ㉠과 같은 자연 현상은 물가치적이다.
- ② ㉡과 같은 자연 현상은 당위 법칙이 아니라 존재 법칙을 따른다.
- ③ ㉢과 같은 자연 현상은 보편성이 강하게 나타난다.
- ④ ㉣과 같은 사회·문화 현상은 개연성의 원리가 적용된다.
- ⑤ ㉤과 같은 사회·문화 현상은 확실성의 원리가 아니라 확률의 원리가 적용된다.

10 25학년도 6월 평가원 1번

정답 : ④

자연 현상	사회·문화 현상
㉠, ㉢	㉡, ㉣

〈선지 분석〉

- ① ㉠과 같은 자연 현상은 당위 법칙이 아니라 존재 법칙을 따른다.
- ② ㉡과 같은 사회·문화 현상은 확실성의 원리가 아니라 확률의 원리를 따른다.
- ③ ㉢과 같은 자연 현상은 물가치적이고, ㉡과 같은 사회·문화 현상은 가치 함축적이다.
- ④ ㉣과 같은 사회·문화 현상에 비해 ㉠과 같은 자연 현상은 인과 관계가 분명하다.
- ⑤ ㉣과 같은 사회·문화 현상, ㉢과 같은 자연 현상 모두 경험적 자료로 연구할 수 있다.

11 25학년도 9월 평가원 1번

정답 : ⑤

자연 현상	사회·문화 현상
㉠, ㉡, ㉢	㉣

※ 특수 오일을 개발한 주체가 사람일 것이라 생각하고 ㉢을 사회·문화 현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수 오일이 모기가 사람의 피부에 앉는 것을 차단하는 것은 특수 오일 자체가 일으키는 현상으로서 자연 현상이라고 봐야 합니다.

〈선지 분석〉

- ① ㉣과 같은 사회·문화 현상은 필연성의 원리가 아니라 개연성의 원리가 적용된다.
- ② ㉠과 같은 자연 현상은 확률의 원리가 아니라 확실성의 원리가 적용된다.
- ③ ㉠, ㉡과 같은 자연 현상은 가치 함축적이지 않고 몰가치적이다.
- ④ ㉡, ㉢과 같은 자연 현상은 특수성이 나타난다고 보기 어렵다.
- ⑤ ㉢과 같은 자연 현상과 달리 ㉣과 같은 사회·문화 현상은 인과 관계가 불분명하다.

12 25학년도 수능 1번

정답 : ①

자연 현상	사회·문화 현상
㉠, ㉢	㉡, ㉣, ㉤

〈선지 분석〉

- ① ㉡과 같은 사회·문화 현상은 확률의 원리가 적용된다.
- ② ㉠과 같은 자연 현상은 인과 관계가 분명하다.
- ③ ㉢과 같은 사회·문화 현상은 필연성의 원리가 아니라 개연성의 원리가 적용된다.
- ④ ㉣, ㉤과 같은 사회·문화 현상은 몰가치적이지 않고 가치 함축적이다.
- ⑤ ㉢과 같은 자연 현상에 비해 ㉤과 같은 사회·문화 현상은 특수성이 강하다.

(2)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

01 21학년도 6월 평가원 8번

정답 : ①

갑	을	병
기능론	갈등론	상징적 상호 작용론

<선지 분석>

- ① **기능론은 지배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논리로 활용될 수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 ② 사회의 각 부분이 상호 의존적 관계를 맺는다고 보는 관점은 갈등론이 아니라 기능론이다.
- ③ 상징적 상호 작용론은 사회·문화 현상을 거시적 측면이 아니라 미시적 측면에서 설명한다.
- ④ 대립과 갈등을 사회의 본질적 속성으로 보는 관점은 기능론이 아니라 갈등론이다.
- ⑤ 행위자의 능동성을 중시하는 관점은 갈등론이 아니라 상징적 상호 작용론이다.

02 21학년도 9월 평가원 6번

정답 : ②

갑	을	병
갈등론	상징적 상호 작용론	기능론

<선지 분석>

- ① 갈등론은 결혼이 불평등한 성역할 분담 체계의 강화에 기여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 ② **상징적 상호 작용론은 사회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결혼에 대한 인식 변화에 주목한다.**
- ③ 기능론은 결혼 제도가 사회 구성원들을 충원함으로써 사회 유지에 기여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 ④ 갈등론과 기능론 모두 결혼을 하지 않는 사람이 증가하는 현상을 거시적 관점에서 이해한다.
- ⑤ 결혼 제도와 다른 사회 제도 간 상호 의존성을 설명하는 데 유용한 관점은 상징적 상호 작용론이 아니라 기능론이다.

03 21학년도 수능 14번

정답 : ③

갑	을	병
상징적 상호 작용론	갈등론	기능론

<선지 분석>

- ① 상징적 상호 작용론은 사회·문화 현상을 거시적 측면이 아니라 미시적 측면에서 설명한다.
- ② 지배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논리로 활용될 수 있다는 비판을 받는 관점은 갈등론이 아니라 기능론이다.
- ③ **기능론은 사회 각 부분이 상호 의존적 관계를 맺는다고 본다.**
- ④ 대립과 갈등을 사회의 본질적 속성으로 보는 관점은 상징적 상호 작용론이 아니라 갈등론이다.
- ⑤ 행위자의 능동성을 중시하는 관점은 기능론이 아니라 상징적 상호 작용론이다.

04 22학년도 6월 평가원 18번

정답 : ①

(가)	(나)	(다)
상징적 상호 작용론	기능론	갈등론

<선지 분석>

- ① **상징적 상호 작용론은 사회 구조가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간과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 ② 사회 제도를 통해 기존의 불평등한 사회 구조가 재생산된다고 보는 관점은 기능론이 아니라 갈등론이다.
- ③ 사회 각 부분이 상호 보완적 역할을 수행한다고 보는 관점은 상징적 상호 작용론이 아니라 기능론이다.
- ④ 대립과 갈등을 사회 구조의 필연적 속성으로 보는 관점은 기능론이 아니라 갈등론이다.
- ⑤ 사회·문화 현상의 의미가 발생 상황과 행위 주체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는 관점은 상징적 상호 작용론 뿐이다. 따라서, 해당 질문으로 상징적 상호 작용론과 갈등론을 구분할 수 있다.

05 22학년도 9월 평가원 2번

정답 : ③

갑	을	병
기능론	상징적 상호 작용론	갈등론

<선지 분석>

- ① 개인의 행동이 상황에 대한 주관적 해석에 기초하여 이루어진다고 보는 관점은 기능론이 아니라 상징적 상호 작용론이다.
- ② 기득권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논리로 사용된다는 비판을 받는 관점은 상징적 상호 작용론이 아니라 기능론이다.
- ③ **갈등론은 집단 간 갈등이 필연적이며 사회 변동의 원동력이라고 본다.**
- ④ 상징적 상호 작용론은 사회 문제를 설명하는 데 사회 구조적 요인을 간과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사회 문제를 설명하는 데 사회 구조적 요인을 중시하는 관점은 거시적 관점에 해당하는 기능론과 갈등론이다.
- ⑤ 사회 구성 요소의 기능과 역할이 사회적으로 합의된 것으로 보는 관점은 상징적 상호 작용론, 갈등론이 아니라 기능론이다.

06 22학년도 수능 3번

정답 : ㄷ, ㄹ

기득권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논리로 사용된다는 비판을 받는 관점은 기능론이므로 두 번째 질문에 '예'라고 답한 C는 기능론이다. 사회·문화 현상을 사회 구조적 측면에서 설명하는 관점은 기능론과 갈등론이므로 세 번째 질문에 '예'라고 답한 B는 갈등론, '아니요'라고 답한 A는 상징적 상호 작용론이다. (가)에는 상징적 상호 작용론이 '예', 기능론과 갈등론이 '아니요'라고 답할 질문이 들어가야 한다.

A	B	C
상징적 상호 작용론	갈등론	기능론

<선지 분석>

- ㄱ. 집단 간 갈등을 사회 변동의 원동력으로 보는 관점은 상징적 상호 작용론이 아니라 갈등론이다.
- ㄴ. 사회 각 부분의 통합과 균형을 강조하는 관점은 갈등론이 아니라 기능론이다.
- ㄷ. **기능론은 상징적 상호 작용론과 달리 다양한 사회 제도들의 상호 의존 관계에 주목한다.**
- ㄹ. **인간이 상황 정의에 기초하여 행동한다고 보는 관점은 상징적 상호 작용론뿐이므로 해당 질문은 (가)에 들어갈 수 있다.**

07 23학년도 6월 평가원 19번

정답 : ③

(가)	(나)	(다)
상징적 상호 작용론	기능론	갈등론

<선지 분석>

- ① 사회의 각 부분이 상호 의존적 관계를 맺는다고 보는 관점은 상징적 상호 작용론이 아니라 기능론이다.
- ② 상황에 대한 주관적인 해석 과정을 중시하는 관점은 기능론이 아니라 상징적 상호 작용론이다.
- ③ **갈등론은 지배 집단과 피지배 집단 간 대립과 투쟁을 사회 변동의 원동력으로 본다.**
- ④ 기능론은 갈등론과 달리 사회 질서와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 ⑤ 지배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논리로 활용될 수 있다는 비판을 받는 관점은 기능론이다.

08 23학년도 9월 평가원 14번

정답 : ②

갑	을	병
기능론	상징적 상호 작용론	갈등론

<선지 분석>

- ① 개인의 행위가 상황에 대한 주관적 해석에 기초하여 이루어진다고 보는 관점은 기능론이 아니라 상징적 상호 작용론이다.
- ② **기능론은 갈등론과 달리 기득권층이 이익을 대변하는 논리로 활용될 수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 ③ 집단 간 갈등을 사회 변동의 원동력으로 보는 관점은 상징적 상호 작용론이 아니라 갈등론이다.
- ④ 갈등론은 지배 계급과 피지배 계급의 이익이 조화를 이룰 수 없다고 본다.
- ⑤ 갈등론은 거시적 관점으로 사회 구조가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강조한다. 사회 구조가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간과한다는 비판을 받는 관점은 갈등론이 아니라 미시적 관점에 해당하는 상징적 상호 작용론이다.

09 23학년도 수능 3번

정답 : ⑤

‘경쟁이 갈등을 유발하고 사회 질서를 위협한다.’, ‘전문화로 인한 업무 분화는 무한 경쟁이 파괴할 수 있는 질서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다.’ 등의 내용을 통해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필자의 관점은 기능론임을 알 수 있다.

〈선지 분석〉

- ① 기능론은 사회의 변동보다는 안정을 중시한다. 사회의 안정보다 변동을 중시하는 관점은 갈등론이다.
- ② 상황 정의에 기초한 개인 간 상호 작용을 중시하는 관점은 상징적 상호 작용론이다.
- ③ 사회에는 어느 시점에나 구조적 모순이 내재되어 있다고 보는 관점은 갈등론이다.
- ④ 사회 제도를 지배와 피지배 관계의 재생산을 위한 수단으로 보는 관점은 갈등론이다.
- ⑤ **기능론은 지배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논리로 활용될 수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10 24학년도 6월 평가원 3번

정답 : ②

지배 집단과 피지배 집단이 희소 자원을 차지하기 위해 서로 끊임없이 투쟁하며, 두 집단의 이익은 양립할 수 없으므로 갈등은 필연적이고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보는 A는 갈등론이다. 한편, 갈등은 일시적인 현상이며, 균형을 유지하려는 사회 체계의 속성으로 인하여 머지않아 조화롭게 조정된다고 보는 B는 기능론이다.

A	B
갈등론	기능론

〈선지 분석〉

- ① 상황 정의에 기초한 개인 간 상호 작용을 중시하는 관점은 갈등론(A)이 아니라 상징적 상호 작용론이다.
- ② **기능론(B)은 사회의 유지와 발전을 위해 사회적 희소가치의 불균등한 분배가 불가피하다고 본다.**
- ③ 기득권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논리로 사용된다고 비판을 받는 관점은 갈등론(A)이 아니라 기능론(B)이다.
- ④ 기능론(B)은 갈등론(A)과 달리 질서와 안정성을 바탕으로 한 점진적인 사회 변동을 설명하기 쉽다. 한편, 갈등론(A)은 혁명과 같은 급진적인 사회 변동을 설명하기 쉽다.
- ⑤ 갈등론(A)과 기능론(B)은 모두 개인에 대한 사회 구조의 영향력을 중시한다.

11 24학년도 수능 4번

정답 : ④

갑, 을의 설명에 대응하는 관점은 다음과 같다.

발언자	설명	관점
갑	사회가 생물 유기체처럼 균형을 유지한다고 전제한다. 조화와 균형은 정상적 상태로, 부조화와 불균형은 병리적 상태로 본다.	기능론
을	사회를 구성하는 하위 요소가 사회 전체의 존속과 통합을 위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본다.	기능론
	사회 각 부분에 존재하는 복잡한 관계를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로 단순화한다.	갈등론

갑은 옳은 설명을 제시했으므로 A는 기능론이다. 을은 B의 내용은 없고, A와 C의 내용만 있으므로 B는 상징적 상호 작용론, C는 갈등론이다.

〈선지 분석〉

- ① 개인의 상황 정의와 의미 해석을 강조하는 관점은 기능론(A)이 아니라 상징적 상호 작용론(B)이다.
- ② 사회에 내재한 구조적 모순을 중심으로 사회 현상을 설명하는 관점은 상징적 상호 작용론(B)이 아니라 갈등론(C)이다.
- ③ 기득권층의 이익을 옹호한다는 비판을 받는 관점은 갈등론(C)이 아니라 기능론(A)이다.
- ④ **갈등론(C)은 기능론(A), 상징적 상호 작용론(B)과 달리 대립과 갈등을 사회의 본질적 속성으로 본다. 따라서 해당 질문으로 기능론(A)과 상징적 상호 작용론(B)은 구분할 수 없다.**
- ⑤ 기능론(A)은 갈등론(C), 상징적 상호 작용론(B)과 달리 사회 각 제도의 상호 의존적 관계에 주목한다. 따라서 해당 질문으로 상징적 상호 작용론(B)과 갈등론(C)은 구분할 수 없다.

12 25학년도 6월 평가원 2번

정답 : ㄷ

필자는 개인이 자신의 이익을 온전히 추구하기 위해 사회 내 구조화된 관계에 의해 규정된 역할 속에서 다른 구성원들의 이익 추구 과정을 고려해야만 하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개별 구성원의 이익과 집합체의 이익 간 불일치로 사회적 갈등이 나타났던 상황에서도 집합체가 안정적인 상태에 도달한다고 본다. 이러한 필자의 관점은 사회를 이루는 구성 요소들은 사회 속의 한 부분으로서 각기 서로 다른 기능을 담당하고 그러한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사회의 안정과 질서가 유지되며, 사회는 일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가 발생하더라도 스스로 조화와 균형을 회복할 수 있는 힘을 지니고 있다는 기능론이다.

※ 쉽지 않은 제시문입니다. ‘이익 간 불일치, 사회적 갈등’과 같은 용어를 통해 학생들이 필자의 관점을 갈등론이라고 생각하도록 유도한 제시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발체독을 통해 단어 하나하나에 신경쓰기 보다는 제시문을 읽으면서 전체적으로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잡으시길 권합니다.

〈선지 분석〉

- ㄱ. 대립과 갈등을 사회의 본질적 속성으로 보는 관점은 기능론이 아니라 갈등론이다.
- ㄴ. 기능론은 질서와 안정에 기반한 점진적 사회 변동을 설명하기 용이하다.
- ㄷ. **기능론은 사회적 갈등을 균형 회복을 위한 일시적인 과정으로 이해한다.**

13 25학년도 9월 평가원 6번

정답 : ②

불공정한 사회 구조가 사회적 희소가치의 분배를 일방적으로 결정한다고 보는 갑의 관점은 갈등론, 계층적 지위가 개인이 자신의 능력과 노력을 통해 정당하게 얻은 결과이며 이를 우리 사회 대다수 구성원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다고 보는 을의 관점은 기능론, 계층적 지위는 사람들과 교류하는 과정 속에서 형성된다고 보는 병의 관점은 상징적 상호 작용론이다.

갑	을	병
갈등론	기능론	상징적 상호 작용론

〈선지 분석〉

- ① 사회 불평등 현상이 불가피하다고 보는 관점은 갈등론이 아니라 기능론이다.
- ② **기능론은 개인의 행위에 미치는 사회 구조의 영향력을 중시한다.**
- ③ 사회 현상을 갈등과 대립의 측면에서만 파악한다는 비판을 받는 관점은 상징적 상호 작용론이 아니라 갈등론이다.
- ④ 지배 집단과 피지배 집단의 이익이 조화를 이루기 어렵다고 보는 관점은 갈등론뿐이다.
- ⑤ 기득권층의 이익을 옹호하는 논리로 활용된다는 비판을 받는 관점은 기능론뿐이다.

14 25학년도 수능 2번

정답 : ㄷ, ㄹ

필자는 사회 체계 안에서 개인들에게 할당되는 분화된 역할 구조가 있고, 개인은 이 역할 구조 속에서 사회가 기대하는 행동을 수행한다고 본다. 이렇게 개인이 사회의 한 부분으로서 공유된 기대에 부응하여 다른 부분과 유기적으로 상호 작용을 함에 따라 사회라는 완전체가 형성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필자의 관점은 사회가 유기체처럼 다양한 부분들이 상호 의존적인 관계를 이루며 하나의 체계를 형성하고 있음을 나타낸다는 사회 유기체설을 전제로 하고, 사회 규범이나 사회 제도 등이 수행하는 역할은 전체 사회의 통합과 존속, 질서 유지에 기여한다고 보는 기능론에 해당한다.

※ ‘상호 작용’이라는 용어를 통해 학생들이 필자의 관점을 상징적 상호 작용론이라고 생각하도록 유도한 제시문입니다. 발체독을 통해 단어 하나하나에 신경쓰기 보다는 제시문을 읽으면서 기존에 알고 있던 각 관점의 내용과 연결해 전체적으로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잡으시길 권합니다.

〈선지 분석〉

- ㄱ. 상황 정의에 기초한 개인 간 상호 작용을 중시하는 관점은 기능론이 아니라 상징적 상호 작용론이다.
- ㄴ. 개인 행위자의 능동적이고 자율적인 측면을 중시하는 관점은 기능론이 아니라 상징적 상호 작용론이다.
- ㄷ. **기능론은 사회의 각 부분이 상호 의존적 관계를 맺는다고 본다.**
- ㄹ. **기능론은 사회는 스스로 균형을 유지하려는 속성을 지닌다고 본다.**

Part
02

문제 풀이법 파트



Chapter
01 구분 유형

01 19학년도 수능 4번

정답 : ③

개인의 행동이 개인 외부에서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강제력에 의해 규제된다고 보는 관점은 거시적 관점에 해당하는 기능론과 갈등론이다. 따라서 두 번째 질문으로는 기능론과 갈등론을 구분할 수 없으므로 B는 상징적 상호 작용론이다.

개인의 행동은 특정 집단의 가치가 반영된 사회 규범에 따라 강제되는 것이라고 보는 관점은 갈등론뿐이므로 상징적 상호 작용론(B)는 첫 번째 질문에 '아니요'라고 답한다. 첫 번째 질문으로 A와 B를 구분할 수 있으므로 A는 첫 번째 질문에 '예'라고 답할 갈등론이다. 따라서 C는 기능론이다.

A	B	C
갈등론	상징적 상호 작용론	기능론

〈선지 분석〉

- ① 사회의 각 부분이 상호 의존적인 관계라고 보는 관점은 갈등론(A)이 아니라 기능론(C)이다.
- ② 사회의 안정보다 변동을 중시하는 관점은 상징적 상호 작용론(B)이 아니라 갈등론(A)이다.
- ③ **기능론(C)은 사회가 유기체와 유사한 특성을 보인다고 본다.**
- ④ 사회 제도의 영향력을 중시하는 관점은 거시적 관점에 해당하는 갈등론(A)과 기능론(C)이다.
- ⑤ 개인의 행동이 상황에 대한 주관적 해석에 기초하여 이루어진다고 보는 관점은 상징적 상호 작용론(B)뿐이다.

02 21학년도 9월 평가원 13번

정답 : ②

선택 의지에 따라 형성된 사회 집단은 이익 사회이다. 가족, 사내 동호회, 시민 단체, 학교 중 이익 사회에 속하는 사회 집단은 사내 동호회, 시민 단체, 학교이므로 사내 동호회, 시민 단체, 학교는 각각 A, C, D 중 하나이다. 따라서 B는 가족이다.

공통의 관심과 목표에 따라 자발적으로 결성한 사회 집단은 자발적 결사체이다. 가족, 사내 동호회, 시민 단체, 학교 중 자발적 결사체에 속하는 사회 집단은 사내 동호회, 시민 단체이므로 첫 번째 질문에 가족(B)과 같은 답을 한 학교는 D이다.

명시적 규약과 체계화된 업무 수행 방식을 갖춘 사회 집단은 공식 조직이다. 가족, 사내 동호회, 시민 단체, 학교 중 공식 조직에 속하는 사회 집단은 시민 단체, 학교이므로 세 번째 질문에 가족(B)과 같은 답을 한 사내 동호회는 C, 학교(D)와 같은 답을 한 시민 단체는 A이다.

A	B	C	D
시민 단체	가족	사내 동호회	학교

〈선지 분석〉

- ① 사내 동호회(C)는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이다.
- ② **시민 단체(A)는 2차 집단, 가족(B)은 1차 집단이다.**
- ③ 가입과 탈퇴가 자유로운 사회 집단은 자발적 결사체이다.
시민 단체와 학교 중 자발적 결사체는 시민 단체(A)이다.
- ④ 구성원에 대한 비공식적 통제가 일반적인 사회 집단은 1차 집단이다.
가족, 사내 동호회, 학교 중 2차 집단은 학교(D)이다.
- ⑤ A ~ D 중 이익 사회는 시민 단체(A), 사내 동호회(C), 학교(D)이고, 공동 사회는 가족(B)이다.

03 19년 3월 교육청 7번

정답 : ㄱ, ㄴ

문화 간에 우열이 존재한다고 보는 태도는 문화 상대주의와 자문화 중심주의이다. 따라서 C는 문화 상대주의이다. 자기 문화의 정체성을 상실할 우려가 큰 태도는 문화 상대주의이므로 A는 문화 상대주의이다. 따라서 B는 자문화 중심주의이다. (가)에는 자문화 중심주의와 문화 상대주의를 구분할 수 있는 질문이 들어가야 한다.

A	B	C
문화 상대주의	자문화 중심주의	문화 상대주의

<선지 분석>

- ㄱ. 문화 상대주의(C)가 문화 상대주의(A)에 비해 문화의 다양성 보존에 유리하다.
- ㄴ. 문화 상대주의(A)가 자문화 중심주의(B)에 비해 타 문화 수용에 적극적이다.
- ㄷ. 문화 제국주의를 정당화하는 태도는 문화 상대주의(C)가 아니라 자문화 중심주의(B)이다.
- ㄹ. 맹목적으로 자기 문화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는 태도는 문화 상대주의(A)이다.
자문화 중심주의(B)와 문화 상대주의(C) 모두 해당 질문에 '아니오'라는 같은 대답을 하므로 해당 질문은 (가)에 들어갈 수 없다.

04 24학년도 9월 평가원 10번

정답 : ③

(가)에는 A와 B가 서로 다른 응답을 하고, B와 C가 서로 같은 응답을 하는 질문이 들어가야 한다.

〈선지 분석〉

① 주로 양적 자료를 수집할 때 질문지법을 활용하고, 주로 질적 자료를 수집할 때 면접법과 참여 관찰법을 활용한다.

A가 질문지법이라면 B와 C가 각각 면접법이든 참여 관찰법이든 관계없이 '주로 질적 자료를 수집할 때 활용합니까?'라는 질문으로 A와 B를 구분할 수 있고, B와 C를 구분할 수 없다.

따라서 A가 질문지법이라면, 해당 질문은 (가)에 들어갈 수 있다.

② 참여 관찰법은 질문지법, 면접법과 달리 언어나 문자로 의사소통할 수 없는 대상으로부터 자료 수집이 가능하다.

A가 면접법이라면 B와 C가 각각 질문지법이든 참여 관찰법이든 관계없이 '언어나 문자로 의사소통할 수 없는 대상으로부터 자료 수집이 가능합니까?'라는 질문으로 B와 C를 구분할 수 있다.

따라서 A가 면접법이라면, 해당 질문은 (가)에 들어갈 수 없다.

③ 질문지법, 면접법은 참여 관찰법과 달리 자료 수집 과정에서 연구 대상자의 응답이 필수적이다.

C가 참여 관찰법이라면 A와 B가 각각 질문지법이든 면접법이든 관계없이 '자료 수집 과정에서 연구 대상자의 응답이 필수적입니까?'라는 질문으로 A와 B를 구분할 수 없고, B와 C를 구분할 수 있다.

따라서 C가 참여 관찰법이라면, 해당 질문은 (가)에 들어갈 수 없다.

④ 질문지법은 면접법, 참여 관찰법과 달리 자료 수집 과정에서 표준화·구조화된 도구의 사용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C가 질문지법이라면 A와 B가 각각 면접법이든 참여 관찰법이든 관계없이 '자료 수집 과정에서 표준화·구조화된 도구의 사용이 필수적입니까?'라는 질문으로 A와 B를 구분할 수 없고, B와 C를 구분할 수 있다.

따라서 C가 질문지법이라면, 해당 질문은 (가)에 들어갈 수 없다.

⑤ 질문지법은 면접법, 참여 관찰법과 달리 문맹자에게 사용하기 어렵다.

따라서 해당 질문이 (가)에 들어가면 A가 질문지법이다.

면접법, 참여 관찰법 모두 주로 방법론적 이원론을 전제로 한 연구에 활용되므로 B가 면접법이든 참여 관찰법이든 관계없이 주로 방법론적 일원론을 전제로 한 연구와 활용되지 않는다.

※ B와 C는 구분할 수 없으므로 (가)에 '문맹자에게 사용하기 어렵습니까?'가 들어갈 때, B와 C는 모두 질문지법이 될 수 없다.

Chapter 02 개방형 문제 유형

01 19학년도 수능 15번

정답 : ⑤

우리나라의 사회 보장 제도 중 비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하는 것은 사회 서비스이므로 A는 사회 서비스이다. 공공 부조와 사회 보험 중 (가)에 '예'라고 답할 사회 보장 제도는 B이고, '아니오'라고 답할 사회 보장 제도는 C이다.

〈선지 분석〉

- ① 사전 예방적 성격이 강한 사회 보장 제도는 사회 서비스(A)가 아니라 사회 보험이다.
- ② 공공 부조와 사회 보험 중 대상자의 범위가 더 넓은 것은 사회 보험이므로 이 경우에 B는 공공 부조, C는 사회 보험이다. 공공 부조는 사회 서비스보다 소득 재분배 효과가 크다.
- ③ C가 사회 보험이면, B는 공공 부조이다. 강제 가입을 원칙으로 하는 사회 보장 제도는 사회 보험이므로 해당 질문은 (가)에 들어갈 수 없다.
- ④ 공공 부조와 사회 보험 중 국가와 지방 자치 단체가 비용을 모두 부담하는 사회 보장 제도는 공공 부조이므로 해당 질문이 (가)에 들어가면 B는 공공 부조, C는 사회 보험이다. 사회 서비스와 사회 보험의 대상자는 중복될 수 있다. (모든 사회 보장 제도의 대상자는 중복 가능함.)
- ⑤ 공공 부조와 사회 보험 중 상호 부조의 원리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 보장 제도는 사회 보험이므로 해당 질문이 (가)에 들어가면 B는 사회 보험, C는 공공 부조이다.
공공 부조(C)는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 보장 제도이다.

02 20학년도 9월 평가원 12번

정답 : ④

개인의 행위보다 사회 구조를 강조하는 관점은 거시적 관점에 해당하는 기능론과 갈등론이므로 주어진 질문에 '아니요'라고 답한 A는 상징적 상호 작용론이다.

<선지 분석>

- ① 사회의 각 부분이 상호 의존적으로 연관되어 있다고 보는 관점은 상징적 상호 작용론(A)이 아니라 기능론이다.
- ② 사회적으로 공유된 가치와 합의를 중요시하는 관점은 기능론이므로 해당 질문이 (가)에 들어가면 C는 기능론, B는 갈등론이다. 인간을 자율성을 지닌 능동적 존재로 보는 관점은 갈등론이 아니라 상징적 상호 작용론이다.
- ③ 사회 구조를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로 설명하는 관점은 갈등론이므로 해당 질문이 (가)에 들어가면 C는 갈등론, B는 기능론이다. 집단 간의 대립을 균형 회복을 위한 일시적 과정으로 보는 관점은 갈등론이 아니라 기능론이다.
- ④ **사회 제도를 지배 집단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는 관점은 갈등론이다. B가 갈등론이라면, (가)에는 기능론이 '예', 갈등론이 '아니요'라고 답할 질문이 들어가야 한다. 사회를 유기체와 같은 존재로 인식하는 관점은 기능론이므로 해당 질문은 (가)에 들어갈 수 있다.**
- ⑤ 사회가 스스로 균형을 유지하려는 속성을 지닌다고 보는 관점은 기능론이다. C가 기능론이라면, (가)에는 기능론이 '예', 갈등론이 '아니요'라고 답할 질문이 들어가야 한다. 사회적 갈등을 필연적 현상으로 이해하는 관점은 갈등론이므로 해당 질문은 (가)에 들어갈 수 없다.

03 23학년도 6월 평가원 10번

정답 : ㉔

‘북아메리카 원주민의 문화가 이주해 온 유럽인의 문화로 대체된 것’은 문화 동화의 사례이다. 따라서, A는 문화 동화이다. 서로 다른 사회의 문화 요소가 한 사회의 문화 체계 속에서 나란히 존재하는 현상은 문화 병존이므로 B가 문화 병존, C는 문화 융합이다.

A	B	C
문화 동화	문화 병존	문화 융합

〈선지 분석〉

- ① ‘우리나라에서 양력설과 음력설을 모두 지내는 것’은 문화 융합(C)이 아니라 문화 병존(B)의 사례이다.
- ② 문화 동화(A)도 자발적 문화 접변에 의해서 나타날 수 있다.
- ③ 자문화의 정체성 상실을 야기하는 것은 문화 동화(A)뿐이다. (가)에는 문화 동화, 문화 융합이 ‘예’, 문화 병존이 ‘아니오’라고 답할 질문이 들어가야 하므로 해당 질문은 (가)에 들어갈 수 없다.
- ④ 문화 동화(A), 문화 병존(B), 문화 융합(C) 모두 문화 접변의 결과로 외재적 요인에 의해 나타난 문화 변동이다. 따라서, 해당 질문이 (나)에 들어간다면, ㉑과 ㉒ 모두 ‘예’이다.
- ⑤ **문화 융합(C)은 문화 동화(A), 문화 병존(B)과 달리 새로운 문화 요소가 만들어진다.**
따라서, 해당 질문이 (다)에 들어간다면, ㉓은 ‘아니오’, ㉔은 ‘예’이다.

04 18학년도 6월 평가원 19번

정답 : ㉒

(가)에는 A만이 ‘예’라고 답할 질문이 들어가야 한다.

〈선지 분석〉

- ① A가 공공 부조이면, (가)에는 공공 부조만이 ‘예’라고 답할 질문이 들어가야 한다.
공공 부조뿐만 아니라 사회 보험도 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하므로 해당 질문은 (가)에 들어갈 수 없다.
- ② **A가 사회 보험이면, (가)에는 사회 보험만이 ‘예’라고 답할 질문이 들어가야 한다.**
강제 가입을 원칙으로 하는 사회 보장 제도는 사회 보험이므로 해당 질문은 (가)에 들어갈 수 있다.
- ③ A가 사회 서비스이면, (가)에는 사회 서비스만이 ‘예’라고 답할 질문이 들어가야 한다. 상호 부조의 성격이 강한 사회 보장 제도는 사회 보험이므로 해당 질문은 (가)에 들어갈 수 없다.
- ④ 공공 부조, 사회 보험, 사회 서비스 중 소득 재분배 효과가 가장 큰 제도는 공공 부조이므로 해당 질문이 (가)에 들어가면, B와 C는 각각 사회 보험과 사회 서비스 중 하나이다.
고용 보험은 사회 보험에, 기초 연금은 공공 부조에 해당한다.
- ⑤ 상담, 재활, 사회 복지 시설 이용 등의 지원을 기본으로 하는 제도는 사회 서비스이므로 해당 질문이 (가)에 들어가면, B와 C는 각각 공공 부조와 사회 보험 중 하나이다.
공공 부조와 사회 보험의 대상자는 상호 배타적이지 않고 중복될 수 있다.

05 18학년도 9월 평가원 16번

정답 : ㄱ, ㄷ

(가)에는 A와 B 모두 '예'라고 답할 질문이, (나)에는 A만이 '예'라고 답할 질문이, (다)에는 B만이 '예'라고 답할 질문이 들어가야 한다.

〈선지 분석〉

ㄱ. 계급 이론과 계층 이론 모두 사회 불평등 현상의 원인으로 경제적 요인을 고려한다.

따라서 해당 질문은 (가)에 들어갈 수 있다.

ㄴ. A가 계층 이론이라면, (나)에는 계층 이론만이 '예'라고 답할 질문이 들어가야 한다.

사회 불평등 현상을 불연속적인 위계화로 파악하는 이론은 계급 이론이다.

따라서 해당 질문은 (나)에 들어갈 수 없다.

ㄷ. A가 계급 이론이라면, (다)에는 계층 이론만이 '예'라고 답할 질문이 들어가야 한다.

사회 불평등 현상의 발생 원인을 다원론적 관점에서 보는 이론은 계층 이론이다.

따라서 해당 질문은 (다)에 들어갈 수 있다.

ㄹ. B가 계층 이론이라면, (나)에는 계급 이론만이 '예'라고 답할 질문이 들어가야 한다.

지위 불일치 현상을 설명하기에 적합한 이론은 계층 이론이다. 따라서 해당 질문은 (나)에 들어갈 수 없다.

06 15학년도 수능 12번

정답 : ③

(가)에는 B만 '예'라고 답할 질문이, (나)에는 A만 '예'라고 답할 질문이, (다)에는 A와 B 모두 '아니요'라고 답할 질문이 들어가야 한다.

〈선지 분석〉

① A가 계층론이면 (가)에는 계급론만 '예'라고 답할 질문이 들어가야 한다.

지위 불일치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은 계층론이므로 해당 질문은 (가)에 들어갈 수 없다.

② A가 계층론이면 (나)에는 계층론만 '예'라고 답할 질문이 들어가야 한다.

계층을 일원론적 관점에서 구분하는 이론은 계급론이므로 해당 질문은 (나)에 들어갈 수 없다.

③ 동일한 경제적 위치에 있는 집단 구성원이 갖는 강한 귀속 의식을 중시하는 이론은 계급론이다.

(나)에는 A만 '예'라고 답할 질문이 들어가야 하므로 B는 계층론이다.

④ 계급론과 계층론 모두 불평등의 원인을 희소가치의 차등 분배에서 찾는다. (다)에는 계급론과 계층론 모두 '아니요'라고 답할 질문이 들어가야 하므로 해당 질문은 (다)에 들어갈 수 없다.

⑤ 사회 불평등을 연속적인 서열로 파악하는 이론은 계층론이므로 첫 번째 질문이 (가)에 들어가면 B는 계층론이다.

따라서 (나)에는 A인 계급론만이 '예'라고 답할 질문이 들어가야 한다. 사회 이동의 개방성이 크다고 보는 이론은 계급론이 아닌 계층론이므로 두 번째 질문은 (나)에 들어갈 수 없다.

07 17학년도 6월 평가원 5번

정답 : ⑤

(가)에는 B만 '예'라고 답할 질문이, (나)에는 A만 '예'라고 답할 질문이, (다)에는 A와 B 모두 '예'라고 답할 질문이 들어가야 한다.

<선지 분석>

- ① A가 진화론이면 (가)에는 순환론만 '예'라고 답할 질문이 들어가야 한다.
서구 중심적 사고라는 비판을 받는 관점은 진화론이다.
- ② (다)에는 진화론과 순환론 모두 '예'라고 답할 질문이 들어가야 한다.
사회 변동을 사회 발전으로 인식하는 관점은 진화론뿐이다.
- ③ B는 (나)의 질문에 '아니요'라고 답할 관점이 들어간다.
사회 변동이 주기적으로 동일한 과정을 반복한다고 보는 관점은 순환론이므로 B는 진화론이다.
- ④ (다)에는 진화론과 순환론 모두 '예'라고 답할 질문이 들어가야 한다.
사회 변동이 일정한 방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이론은 진화론뿐이다.
- ⑤ (가)가 “제국주의를 정당화하는 근거로 사용되었는가?”이면, A는 순환론이다.
순환론은 사회 변동 과정에서 문명이 퇴보할 수 있다고 본다.

08 19학년도 6월 평가원 6번

정답 : ㄴ, ㄷ

(가)에는 A와 B의 공통적인 특징이, (나)에는 C만의 특징이, (다)에는 A만의 특징이, (라)에는 B만의 특징이 들어가야 한다.

<선지 분석>

- ㄱ.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의 관계를 검증하는 연구에 적합한 자료 수집 방법은 양적 연구에 주로 사용되는 실험법과 질문지법이므로 A가 질문지법이라면, B는 실험법이다. 따라서 C는 면접법이다.
이 상황에서 (나)에는 면접법만의 특징이 들어가야 한다.
면접법은 자료 수집 과정에서 연구자가 유연성이나 융통성을 발휘하기 쉽다.
- ㄴ. 인위적으로 상황을 통제함으로써 변수의 효과를 관찰하기에 용이한 자료 수집 방법은 실험법이므로 C가 면접법이라면, B는 질문지법이다. 이 상황에서 (라)에는 질문지법만의 특징이 들어가야 한다.
질문지법은 대규모 집단을 대상으로 한 자료 수집에 용이하다.
- ㄷ. 연구 대상자와 언어를 매개로 한 상호 작용이 필수적인 자료 수집 방법은 질문지법과 면접법이므로 (가)에 해당 문장이 들어가면, (나)에는 실험법만의 특징이 들어가야 한다.
실험법을 통해서는 실제성이 높은 생생한 자료를 수집하기 어렵다.
- ㄹ. 소수의 응답자로부터 깊이 있는 정보를 수집하기에 용이한 자료 수집 방법은 면접법이므로 (나)에 해당 문장이 들어가면, (가)에는 실험법과 질문지법의 공통적인 특징이 들어가야 한다.
실험법과 질문지법은 수집된 자료를 통계적으로 처리하기에 용이하다.

09 19학년도 9월 평가원 3번

정답 : 나, 르

(가)에는 기능론, 갈등론, 상징적 상호 작용론 중 두 가지 관점에서 '예'라고 답할 질문이 들어가야 하고, (다)에는 (가)에서 '아니오'라고 답할 하나의 관점만이 '예'라고 답할 질문이 들어가야 한다.

<선지 분석>

ㄱ. 인간을 능동적인 주체로 전제하는 관점은 상징적 상호 작용론뿐이므로 해당 질문은 (가)에 들어갈 수 없다.

나. 사회 구성원의 주관적 상황 정의에 기초한 상호 작용을 중시하는 관점은 상징적 상호 작용론뿐이다.

A는 '아니오'라고 답했으므로, B나 C 중 하나는 '예'라고 답하고, 하나는 '아니오'라고 답해야 한다.

따라서 ㉠과 ㉡의 답변은 서로 다르다.

ㄷ. 개인의 행위를 강제하는 사회 체계를 중시하는 관점은 거시적 관점에 해당하는 기능론과 갈등론이다. 따라서 해당 질문은 하나의 관점만 '예'라고 답해야 하는 (다)에 들어갈 수 없다.

르. A, B가 각각 기능론과 갈등론 중 하나라면, C는 상징적 상호 작용론이다.

갈등을 사회 변동의 원동력으로 보는 관점은 갈등론이므로 B가 갈등론일 때, 해당 질문은 (다)에 들어갈 수 있다.

10 19학년도 수능 16번

정답 : ㉤

(가)에는 B만 '예'라고 답할 질문이, (나)에는 A, B, C 모두 '예'라고 답할 질문이, (다)에는 (가)에서 '아니오'라고 답한 A, C가 '예'라고 답할 질문이 들어가야 한다.

<선지 분석>

㉠ 가입과 탈퇴가 자유로운 집단은 자발적 결사체이다. A~C 모두 자발적 결사체에 해당하므로 해당 질문은 (가)에 들어갈 수 없다.

㉡ 본질 의지에 의해 자연 발생적으로 형성된 집단은 공동 사회이다. 자발적 결사체는 모두 이익 사회이므로 해당 질문은 (나)에 들어갈 수 없다.

㉢ 공통의 관심사나 목표를 가지고 결성한 집단은 자발적 결사체이다.

A~C 모두 자발적 결사체이므로 해당 질문은 (다)에 들어갈 수 없다.

㉣ A와 C가 각각 시민 단체와 친목 집단 중 하나라면, B는 이익 집단이다.

자발적 결사체는 모두 사회 다원화에 기여하므로 해당 질문은 (가)에 들어갈 수 없다.

㉤ 과업 지향적인 집단은 공식 조직이다. 친목 집단, 이익 집단, 시민 단체 중 공식 조직에 해당하는 것은 이익 집단과 시민 단체이므로 B가 친목 집단이라면 해당 질문은 (다)에 들어갈 수 있다.

11 20학년도 수능 14번

정답 : ㄷ, ㄹ

(가)에는 A와 B만이 '예'라고 답할 질문이, (나)에는 C만이 '예'라고 답할 질문이, (다)에는 A만이 '예'라고 답할 질문이 들어가야 한다.

〈선지 분석〉

- ㄱ. 국수주의적 태도로 인해 문화 다양성을 거부하는 태도는 자문화 중심주의뿐이다.
(가)에는 두 가지 태도에서 '예'라고 답할 질문이 들어가야 하므로 A가 자문화 중심주의라고 하더라도 해당 질문은 (가)에 들어갈 수 없다.
- ㄴ. B가 자문화 중심주의, C가 문화 상대주의라면, (다)에는 문화 상대주의만이 '예'라고 답할 질문이 들어가야 한다. 타 문화를 일방적으로 추종하는 태도는 문화 상대주의이므로 해당 질문은 (다)에 들어갈 수 없다.
- ㄷ. 문화 간 우열을 평가할 수 있다고 보는 태도는 문화 상대주의와 자문화 중심주의이므로 (가)에 첫 번째 질문이 들어가면 문화 상대주의와 자문화 중심주의는 각각 A와 B 중 하나이고, C는 문화 상대주의다. 개별 사회가 향유하고 있는 문화의 고유한 가치를 존중하는 태도는 문화 상대주의이므로, 두 번째 질문은 (나)에 들어갈 수 있다.
- ㄹ. 자기 문화의 정체성을 상실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을 받는 태도는 문화 상대주의이므로 (나)에 첫 번째 질문이 들어가면 C는 문화 상대주의이다. 자기 문화의 가치만을 중시하는 태도는 자문화 중심주의이므로, 두 번째 질문이 (다)에 들어가면 A는 자문화 중심주의다. 따라서, B는 문화 상대주의이다.

12 22학년도 9월 평가원 3번

정답 : ⑤

A	B	C
질문지법	면접법	참여 관찰법

(가)에는 질문지법만 '예'라고 답할 질문이, (나)에는 참여 관찰법만이 '예'라고 답할 질문이, (다)에는 질문지법과 면접법만이 '예'라고 답할 질문이 들어가야 한다.

〈선지 분석〉

- ① 질문지법, 면접법, 참여 관찰법 중 시간과 비용에 대한 효율성은 질문지법(A)이 가장 높다.
참여 관찰법(C)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다.
- ② 질문지법(A)도 연구 대상자의 주관적 인식을 파악할 수 있다.
- ③ 질문지법, 면접법, 참여 관찰법 모두 경험적 자료의 수집에 적합하므로,
해당 질문은 (가)에 들어갈 수 없다.
- ④ 연구자가 인위적으로 통제된 상황에서 연구 대상자를 관찰하는 방법은 실험법이므로,
해당 질문은 (나)에 들어갈 수 없다.
- ⑤ 질문지법(A)과 면접법(B)은 참여 관찰법(C)과 달리 연구자와 연구 대상자의 언어적 상호 작용이 필수적
이므로, 해당 질문은 (다)에 들어갈 수 있다.

Part
03

표 파트



01 비율과 변화율

comment

- ① 분모의 증가율보다 분자의 증가율이 큰 경우
- ② 분자의 감소율보다 분모의 감소율이 큰 경우

01 17학년도 수능 18번

정답 : ④

이 문제를 풀 때 중요한 것은 2011년의 15~64세 기혼 여성 수와 2013년의 15~64세 기혼 여성 수를 비교하는 것이다. 본문에서 공부했듯이 2012년에 15~64세 기혼 여성 수가 전년 대비 2% 증가한 후, 2013년에 2012년에 비해 2% 감소했다면 결론적으로 15~64세 기혼 여성 수는 줄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야 한다.

2011년의 15~64세 기혼 여성 수를 10,000명이라고 가정하자. 그러면 2012년의 15~64세 기혼 여성 수는 10,200명이다. 또한, 2013년의 15~64세 기혼 여성 수는 10,200-204명으로 이는 2011년의 15~64세 기혼 여성 수인 10,000명보다 작아진다.

<선지 분석>

- ① 2013년에 15~64세 기혼 여성의 수는 2012년 대비 2% 감소했으므로 15~64세 기혼 여성의 수는 2012년이 2013년보다 많다.
- ② 2011년과 2015년의 15~64세 기혼 여성 중 경력 단절 여성 비율은 같고, 2011년의 15~64세 기혼 여성 수가 2015년의 15~64세 기혼 여성 수보다 많으므로 경력 단절 여성의 수는 2011년이 2015년보다 많다.
- ③ 결혼으로 인한 경력 단절 여성의 비율은 47 → 46 → 45 → 40 → 37(%)로 줄어들고 있다.
- ④ 2011년과 2015년의 임신·출산으로 인한 경력 단절 여성 비율은 같고, 2011년의 15~64세 기혼 여성 수가 2014년의 15~64세 기혼 여성 수보다 많으므로 임신·출산으로 인한 경력 단절 여성의 수는 2011년이 2014년보다 많다.
- ⑤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 여성의 수가 가장 많은 해의 후보는 2012년과 2015년이 있다. 2012년은 15~64세 기혼 여성 수가 가장 많은 해이고, 2015년은 경력 단절의 사유로 육아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해이기 때문이다. 2011년의 15~64세 기혼 여성 수를 10,000명으로 가정하면 2012년의 15~64세 기혼 여성 수는 10,200명, 2015년의 15~64세 기혼 여성 수는 9,996명이다. 10,200명의 26%보다는 9,996명의 32%가 크므로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 여성의 수가 가장 많은 해는 2015년이다.

※ 시험장에서는 10,200명의 26%와 9,996명의 32%에 해당하는 수치를 각각 계산하여 구하지 않고도 직관적으로 9,996명의 32%가 더 크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대략적인 수치를 계산하면 10,200명의 26%는 2,600명보다 조금 많을 것이고, 9,996명의 32%는 3,200명보다 조금 적을 것이다.

02 19년 4월 교육청 15번

정답 : ②

다문화 가정 학생 수는 2016년이 가장 많고, 2018년이 두 번째로 많고, 2017년이 가장 적다. 본문에서 언급했듯이, 2017년의 전년 대비 다문화 가정 학생 수 변화율이 -2.0% 이었다가 2018년의 전년 대비 다문화 가정 학생 수 변화율이 2.0% 가 되면 2018년의 다문화 가정 학생 수는 2016년의 다문화 가정 학생 수보다 적다. 2016년의 다문화 가정 학생 수를 1,000명으로 가정하고 계산해보길 바란다.

다문화 가정 학생 수는 2016년에 가장 많은데, 전체 학생 중 다문화 가정 학생 비율은 2016년에 가장 낮으므로 전체 학생 수는 2016년에 가장 많음을 알 수 있다.

〈선지 분석〉

- ① 다문화 가정 학생 수는 2016년이 2018년보다 많다.
- ② **전체 학생 수는 2016년에 가장 많으므로 2017년의 전체 학생 수는 2016년에 비해 감소하였다.**
- ③ 2018년은 2017년에 비해 다문화 가정 학생 수와 고등학교의 다문화 가정 학생 비율이 모두 증가하였다. 그러므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 가정 학생 수는 2016년과 2017년만 비교하면 된다. 2016년의 다문화 가정 학생 수를 1,000명, 2017년의 다문화 가정 학생 수를 980명으로 가정하자. 이때,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 가정 학생 수가 2016년에는 1,000명의 4.9% 이고, 2017년에는 980명의 5.0% 이다. 전자는 49명이고, 후자도 49명이므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 가정 학생 수는 2016년과 2017년에 동일하다.

※ 980명의 5% 를 계산할 때, 980명의 10% 가 98명이고 5% 는 10% 의 절반이라는 것만 알면 굳이 식을 써서 계산하지 않아도 된다.

- ④ 2017년 초등학교에 있는 79.1% 라는 수치는 전체 다문화 가정 학생 중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이지,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중 다문화 가정 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이 아니다. 2017년에 전체 학생 중 다문화 가정 학생 비율이 1.8% 인데,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 가정 학생 수가 전체 초등학생 수의 과반이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
- ⑤ 2016년에 전체 다문화 가정 학생 중 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은 16.8% 이고,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은 4.9% 이다. 16.8 은 4.9 의 4배(19.6)보다 작은 수치이므로 2016년 중학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 가정 학생 수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 가정 학생 수의 4배보다 작다.

Chapter 02 가중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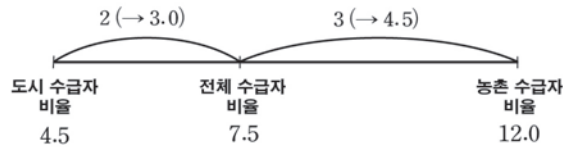
01 정답 : $x = 12\%$, $y = 13\%$

도시 인구나 농촌 인구의 비가 3:2이므로 전체 인구의 수급자 비율은 도시 인구의 수급자 비율에 더 가까이 있다. 전체 인구의 수급자 비율과 농촌 인구의 수급자 비율 간의 거리는 전체 인구의 수급자 비율과 도시 인구의 수급자 비율 간의 거리의 1.5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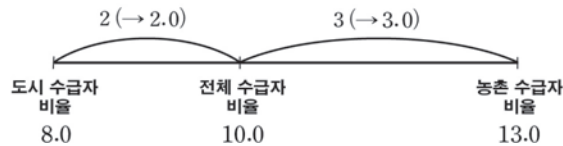
(가) 제도 수급자 비율은 전체 인구가 도시 인구보다 3%p만큼 많으므로, 농촌 인구보다는 4.5%p만큼 적다. 따라서 x 는 12%이다.

(나) 제도 수급자 비율은 전체 인구가 도시 인구보다 2%p만큼 많으므로, 농촌 인구보다는 3%p만큼 적다. 따라서 y 는 13%이다.

(가) 제도



(나) 제도



02 정답 : A 지역의 인구 : 2,000명, A 지역의 (다) 제도 수급자 수 : 68명

B 지역의 (다) 제도 수급자 수가 37명이고, 수급자 비율은 7.4%이므로 B 지역의 인구는 500명이다. (다) 제도 수급자 비율은 B 지역이 갑국보다 3.2%p만큼 많고, A 지역이 갑국보다 0.8%p만큼 적으므로 A 지역의 인구는 B 지역의 4배이다. 따라서 A 지역의 인구는 2,000명이다. A 지역의 (다) 제도 수급자 비율은 3.4%이므로 A 지역의 (다) 제도 수급자 수는 68명이다.

Chapter 03 인구 부양비

01 20년 10월 교육청 18번

정답 : ④

갑국의 총인구 중 연령대별 인구 비율을 표로 배치하고, 부양비와 노령화 지수로 변환한 후 선지 판단을 하도록 하자.

(단위 : %)

구분	1990년	2000년	2010년
65세 이상 인구	10	20	30
15~64세 인구	70	60	60
0~14세 인구	20	20	10

구분	1990년	2000년	2010년
유소년 부양비	$2/7 \times 100$	$2/6 \times 100$	$1/6 \times 100$
노년 부양비	$1/7 \times 100$	$2/6 \times 100$	$3/6 \times 100$
노령화 지수	$1/2 \times 100$	1×100	3×100

<선지 판단>

- ① 2010년의 노령화 지수는 1990년의 6배이다.
- ② 유소년 부양비는 1990년이 2000년보다 작다. 분자가 같을 때는 분모가 작은 것이 더 큰 수이다.
- ③ 유소년 부양비와 노년 부양비의 합이 2000년에는 $4/6 \times 100$ 이고, 2010년에도 $4/6 \times 100$ 이다.
- ④ 15~64세 인구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를 비교하려면 노년 부양비를 확인하면 된다. 노년 부양비는 2010년이 1990년보다 크므로 15~64세 인구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는 1990년보다 2010년이 많다.
- ⑤ 노년 부양비와 노령화 지수 모두 2000년 대비 2010년에 상승하였다.

02 17년 3월 교육청 16번

정답 : 나, 르

연령대별 인구 비율을 표로 배치하고, 부양비와 노령화 지수로 변환한 후 선지 판단을 하도록 하자. 문제를 풀 때는 그래프를 보고 직관적으로 선지를 판단하면 된다.

(단위 : %)

구분	A국		B국		C국	
	1980년	2015년	1980년	2015년	1980년	2015년
65세 이상 인구	16	26	6	15	11	38
15~64세 인구	68	58	65	65	73	53
0~14세 인구	16	16	29	20	16	9

구분	A국		B국		C국	
	1980년	2015년	1980년	2015년	1980년	2015년
유소년 부양비	$16/68 \times 100$	$16/58 \times 100$	$29/65 \times 100$	$20/65 \times 100$	$16/73 \times 100$	$9/53 \times 100$
노년 부양비	$16/68 \times 100$	$26/58 \times 100$	$6/65 \times 100$	$15/65 \times 100$	$11/73 \times 100$	$38/53 \times 100$
노령화 지수	1×100	$26/16 \times 100$	$6/29 \times 100$	$15/20 \times 100$	$11/16 \times 100$	$38/9 \times 100$

<선지 분석>

ㄱ. 1980년에 노년 부양비가 가장 큰 국가는 A국이고, 2015년에 노년 부양비가 가장 큰 국가는 C국이다. 따라서 1980년과 2015년에 노년 부양비가 가장 큰 국가는 서로 다르다.

※ 1980년 C국의 노년 부양비인 $11/73 \times 100$ 은 $1/6 \times 100$ 보다 작고, A국의 노년 부양비인 $16/68 \times 100$ 은 $1/6 \times 100$ 보다 크므로 1980년에는 A국의 노년 부양비가 가장 크다. 2015년에는 C국의 노년 부양비만 $1/2 \times 100$ 보다 크므로 2015년에는 C국의 노년 부양비가 가장 크다. 이렇게 가까운 수를 기준으로 수를 비교하는 것이 편리하다.

나. 0~14세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은 노령화 지수이다.

2015년의 노령화 지수는 C국이 가장 높다.

ㄷ. 1980년 대비 2015년에 A국의 유소년 부양비는 증가하였고, B국의 유소년 부양비는 감소하였다.

르. 1980년 대비 2015년에 A~C국 모두 노년 부양비가 증가하였다.

A국과 C국의 경우, 1980년 대비 2015년에 분모는 감소하였고, 분자는 증가하였으므로 노년 부양비가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03 15년 10월 교육청 14번

정답 : ⑤

별다른 조건이 없고, 유소년 부양비와 노년 부양비 모두 15~64세 인구가 기준이므로 1990년의 15~64세 인구를 100a명, 2000년의 15~64세 인구를 100b명, 2010년의 15~64세 인구를 100c명으로 두고 문제를 풀자.

(단위 : 명)

구분	1990년	2000년	2010년
65세 이상 인구	10a	12b	20c
15~64세 인구	100a	100b	100c
0~14세 인구	40a	33b	20c
총인구	150a	145b	140c

구분	1990년	2000년	2010년
유소년 부양비	$2/5 \times 100$	$33/100 \times 100$	$1/5 \times 100$
노년 부양비	$1/10 \times 100$	$3/25 \times 100$	$1/5 \times 100$
노령화 지수	$1/4 \times 100$	$12/33 \times 100$	1×100

<선지 분석>

- ① 1990년에 총인구 중 0~14세 인구와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50/150) \times 100\%$ 이다.
- ② 2000년에 0~14세 인구 100명을 부양하는 데 15~64세 인구가 33명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0~14세 인구 33명을 부양하는 데 15~64세 인구가 100명이 필요한 것이다.
- ③ 0~14세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노령화 지수를 통해 알 수 있다.
노령화 지수는 2010년이 1990년보다 높으므로
0~14세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2010년이 1990년보다 높다.
- ④ 총인구 중 15~64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0년($100/140$)이 2000년($100/145$)보다 높다.
- ⑤ 총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1990년은 $10/150$ 이고, 2010년은 $20/140$ 이다. $10/150$ 의 2배인 $20/150$ 은 $20/140$ 보다 작으므로 총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0년이 1990년의 2배보다 크다.

04 22학년도 6월 평가원 20번

정답 : ⑤

A 지역의 노령화 지수가 2000년에는 60이므로 2000년의 유소년 인구 비율은 25%이다. 따라서, 2000년의 부양 인구 비율은 60%이다. A 지역의 노령화 지수가 2020년에는 125이므로 2020년의 노인 인구 비율은 25%이다. 따라서, 2020년의 부양 인구 비율은 55%이다. 2000년에 비해 2020년 A 지역 총인구는 20% 증가했으므로 2000년의 총인구를 1,000명이라고 하면, 2020년의 총인구는 1,200명이다.

2000년의 총인구를 1,000명이라고 가정했을 때, 2000년과 2020년의 유소년 인구, 부양 인구, 노인 인구는 다음 표와 같다.

(단위 : 명)

구분	2000년	2020년
유소년 인구	250	240(=200×1.2)
부양 인구	600	660(=550×1.2)
노인 인구	150	300(=250×1.2)
총인구	1,000	1,200

〈선지 분석〉

- ① 2020년에 노인 인구(300)는 유소년 인구(240)의 2배 미만이다.
- ② 부양 인구는 2000년(600)에 비해 2020년(660)에 증가하였다.
- ③ 2000년 유소년 부양비 $[(250/600) \times 100]$ 와 2020년 노인 부양비 $[(300/660) \times 100]$ 은 다르다.
약분하면 전자는 $(5/12 \times 100)$, 후자는 $(5/11 \times 100)$ 이다.
- ④ 2000년에 비해 2020년의 노인 인구는 $100\%[(300-150)/150]$ 증가하였고, 유소년 인구는 $4\%[(250-240)/250]$ 감소하였다.
- ⑤ 유소년 부양비는 2000년 $[(250/600) \times 100]$ 에 비해 2020년 $[(240/660) \times 100]$ 에 감소하였다.
노인 부양비는 2000년 $[(150/600) \times 100]$ 에 비해 2020년 $[(300/660) \times 100]$ 에 증가하였다.
총부양비는 2000년 $[(400/600) \times 100]$ 에 비해 2020년 $[(540/660) \times 100]$ 에 증가하였다.

05 22학년도 9월 평가원 15번

정답 : ④

갑국에서 t년에 전체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은 10%이고, 0~14세 인구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는 50명이므로 0~14세 인구의 비율은 20%이다. 따라서, t년에 15~64세 인구의 비율은 70%이다. t+60년에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은 20%이고, 0~14세 인구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는 200명이므로 0~14세 인구의 비율은 10%이다. 따라서, t+60년에 15~64세 인구의 비율은 70%이다.

을국에서 t년에 전체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은 10%이고, 0~14세 인구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는 40명이므로 0~14세 인구의 비율은 25%이다. 따라서, t년에 15~64세 인구의 비율은 65%이다. t+60년에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은 30%이고, 0~14세 인구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는 300명이므로 0~14세 인구의 비율은 10%이다. 따라서, t+60년에 15~64세 인구의 비율은 60%이다.

갑국 전체 인구와 을국 전체 인구는 각각 t년 대비 t+60년에 10% 증가했으므로 t년의 갑국 전체 인구를 1,000a명, 을국 전체 인구를 1,000b명이라고 하면 갑국과 을국의 t년과 t+60년 0~14세, 15~64세, 65세 이상 인구는 각각 다음과 같다.

(단위 : %)

구분	갑국		을국	
	t년	t+60년	t년	t+60년
65세 이상 인구	100a	220a	100b	330b
15~64세 인구	700a	770a	650b	660b
0~14세 인구	200a	110a	250b	110b
총인구	1,000a	1,100a	1,000b	1,100b

〈선지 분석〉

- ① t년의 노인 부양비는 갑국 $[(100/700) \times 100]$ 이 을국 $[(100/650) \times 100]$ 보다 작다.
- ② t+60년의 유소년 부양비는 갑국 $[(110/770) \times 100]$ 이 을국 $[(110/660) \times 100]$ 보다 작다.
- ③ 갑국의 65세 이상 인구는 t년(100a) 대비 t+60년(220a)에 2.2배가 되었다.
- ④ t년 대비 t+60년에 15~64세 인구는 갑국(700a→770a)과 을국(650b→660b) 모두 증가하였다.
- ⑤ t년 대비 t+60년에 0~14세 인구는 갑국(200a→110a)과 을국(250b→110b) 모두 감소하였다.

06 22학년도 수능 20번

정답 : ③

갑국에서 $t+100$ 년에 전체 인구 중 유소년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t 년에 전체 인구 중 유소년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의 $1/2$ 이고, t 년에 전체 인구 중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의 2배이므로 t 년에 전체 인구 중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을 $a\%$ 라고 하면, $t+100$ 년에 전체 인구 중 유소년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2a\%$ 이고, t 년에 전체 인구 중 유소년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4a\%$ 이다.

노인 인구, 부양 인구, 유소년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의 합은 100% 이고, t 년에 총부양비가 100이라는 것은 부양 인구와 (유소년 인구+노인 인구)가 같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부양 인구 비율은 50% 이고, a 는 10이다. 갑국에서 $t+100$ 년에 총부양비는 150이므로 $t+100$ 년에 전체 인구 중 부양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40% 이다. $t+100$ 년에 전체 인구 중 유소년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20% 이므로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40% 이다.

(단위 : %)

연령대별 인구	t 년	$t+100$ 년
노인 인구	10	40
부양 인구	50	40
유소년 인구	40	20

t 년과 $t+100$ 년의 부양 인구는 동일하므로 t 년과 $t+100$ 년의 부양 인구를 200명이라고 하면, 시기·연령대별 인구는 다음과 같다.

(단위 : %)

연령대별 인구	t 년	$t+100$ 년
노인 인구	40	200
부양 인구	200	200
유소년 인구	160	100

<선지 분석>

- ① 전체 인구는 t 년 대비 $t+100$ 년에 $25\%[\{(500-400)/400\} \times 100\%]$ 증가하였다.
- ② 유소년 부양비는 t 년 대비 $t+100$ 년에 $37.5\%[\{(80-50)/80\} \times 100\%]$ 감소하였다.
- ③ 노령화 지수는 $t+100$ 년 $[2 \times 100]$ 이 t 년 $[(1/4) \times 100]$ 의 8배이다.
- ④ 노년 부양비는 $t+100$ 년 $[1 \times 100]$ 이 t 년 $[(1/5) \times 100]$ 의 5배이다.
- ⑤ t 년의 유소년 인구(160)와 $t+100$ 년의 노인 인구(200)는 서로 다르다.

07 23학년도 6월 평가원 20번

정답 : 나, 르

갑국의 부양 인구는 t 년에 비해 $t+100$ 년에 절반으로 감소했으나, 두 시기의 총부양비가 60으로 동일하다는 말을 통해 총인구도 t 년에 비해 $t+100$ 년에 절반으로 감소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t 년과 $t+100$ 년에 갑국 전체 인구 중 부양 인구의 비율은 $62.5[(100/100+60)\times 100]\%$ 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갑국 전체 인구 중 (유소년 인구+노년 인구)의 비율은 t 년과 $t+100$ 년 모두 $37.5(100-62.5)\%$ 이며, 갑국 전체 인구 중 노년 인구의 비율은 t 년이 12.5%, $t+100$ 년이 25%이다. 이를 통해 t 년과 $t+100$ 년의 노년 인구는 같음을 알 수 있다. 또한, t 년에 비해 $t+100$ 년의 유소년 인구는 $1/4$ 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t 년의 부양 인구를 1,000명이라고 가정했을 때의 두 시기의 인구 분포는 다음과 같다.

(단위 : 명)

구분	t 년	$t+100$ 년
노년 인구	200	200
부양 인구	1,000	500
유소년 인구	400	100
총인구	1,600	800

<선지 분석>

- ㄱ. 유소년 인구는 t 년(400) 대비 $t+100$ 년(100)에 $75\{[(400-100)/400]\times 100\}\%$ 감소하였다.
- 나. **t 년의 노년 인구(200)와 $t+100$ 년의 노년 인구(200)는 동일하다.**
- ㄴ. 유소년 인구와 노년 인구의 합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t 년(3/8)과 $t+100$ 년(3/8)에서 동일하다. 이는 두 시기의 총부양비가 동일하다는 것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 ㄷ. 유소년 부양비는 t 년에 $40[(4/10)\times 100]$, $t+100$ 년에 $20[(2/10)\times 100]$ 이고, 노년 부양비는 t 년에 $20[(1/5)\times 100]$, $t+100$ 년에 $40[(2/5)\times 100]$ 이다. t 년에 비해 $t+100$ 년에 유소년 부양비는 절반으로 감소하였고, 노년 부양비는 2배가 되었으므로 해당 문장은 (가)에 들어갈 수 있다.

08 23학년도 9월 평가원 20번

정답 : ④

t년에 부양 인구는 전체 인구의 절반이므로 유소년 인구와 노년 인구의 합과 같다. t년에 유소년 인구는 750만 명, 노년 인구는 250만 명이므로 부양 인구는 1,000만 명이다.

A의 경우 유소년 인구는 900만 명($750\text{만 명} \times 1.2$), 노년 인구는 300만 명($250\text{만 명} \times 1.2$)이다. 이때, 부양 인구는 전체 인구의 절반이므로 부양 인구는 유소년 인구와 노년 인구의 합과 같다. 따라서, A의 경우 부양 인구는 1,200만 명이다.

B의 경우 유소년 인구는 600만 명($750\text{만 명} \times 0.8$), 노년 인구는 600만 명($250\text{만 명} \times 2.4$)이다. 이때, 부양 인구는 전체 인구의 절반이므로 부양 인구는 유소년 인구와 노년 인구의 합과 같다. 따라서, B의 경우 부양 인구는 1,200만 명이다.

※ 20% 증가는 기존 수치의 1.2배가, 20% 감소는 기존 수치의 0.8배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구분	현재(t년)	t+100년의 시나리오 예측 결과	
		A	B
유소년 인구 (0~14세 인구)	750만 명	900만 명	600만 명
부양 인구 (15~64세 인구)	1,000만 명	1,200만 명	1,200만 명
노년 인구 (65세 이상 인구)	250만 명	300만 명	600만 명
전체 인구	2,000만 명	2,400만 명	2,400만 명

〈선지 분석〉

- ① 노년 부양비는 A가 $25[(300/1,200) \times 100]$, 현재도 $25[(250/1,000) \times 100]$ 이므로 둘은 같다.
- ② 총부양비는 B가 $100[(1,200/1,200) \times 100]$, 현재도 $100[(1,000/1,000) \times 100]$ 이므로 둘은 같다.

※ t년과 t+100년의 가정 모두 부양 인구가 전체 인구의 절반이므로 총부양비는 100으로 같다.

- ③ 유소년 부양비는 A가 $75[(900/1,200) \times 100]$, B가 $50[(600/1,200) \times 100]$ 이므로 A가 B의 1.5배이다.
- ④ 전체 인구에서 노년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B [$(6/24) \times 100\%$]가 A [$(3/24) \times 100\%$]의 2배이다.
- ⑤ 전체 인구에서 노년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B [$(6/24) \times 100\%$]가 A [$(3/24) \times 100\%$]보다 높고, 유소년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A [$(9/24) \times 100\%$]가 B [$(6/24) \times 100\%$]보다 높으므로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A보다 B에서 더 부각된다.

09 23학년도 수능 20번

정답 : ③

t년 대비 t+50년에 전체 인구는 25% 증가했으므로 t년 전체 인구를 400a명이라고 가정하면, t+50년의 전체 인구는 500a명이다. t+50년의 전체 인구 중 유소년 인구 비율은 28%이므로 140a명이고, t년 대비 t+50년에 유소년 인구는 12.5% 감소했으므로 t년에 유소년 인구는 160a(= 140a×8/7)명이다. 이를 통해 t년의 전체 인구 중 유소년 인구 비율은 40%임을 알 수 있다.

t년의 전체 인구 중 노인 인구 비율은 20%이므로 부양 인구 비율은 40%이다. 따라서, t년에 노년 부양비는 50(= 20/40×100)이다. t년 대비 t+50년에 노년 부양비는 150% 증가했으므로 t+50년에 노년 부양비는 125이다. t+50년에 전체 인구 중 노년 인구 비율과 부양 인구 비율의 합은 72%이므로 t+50년에 전체 인구 중 노년 인구 비율은 40[= 72×(5 / 4+5)]%이고, 부양 인구 비율은 32[= 72×(4 / 4+5)]%이다.

구분	t년	t+50년
노인 인구	80a명 (20%)	200a명 (40%)
부양 인구	160a명 (40%)	160a명 (32%)
유소년 인구	160a명 (40%)	140a명 (28%)
전체 인구	400a명 (100%)	500a명 (100%)

〈선지 분석〉

- ① t년의 유소년 인구(160a명)는 t+50년의 노년 인구(200a명)보다 적다.
- ② t년 대비 t+50년에 전체 인구 증가율은 25[= {(500-400) / 400} × 100]%고, 피부양 인구 증가율은 41.66…[= {(340-240) / 240} × 100]%이다.
따라서, t년 대비 t+50년에 전체 인구 증가율이 피부양 인구 증가율보다 작다.
※ 전체 인구 중 부양 인구 비율은 t년이 t+50년보다 크므로 피부양 인구 비율은 t+50년이 t년보다 크다. 때문에 t년 대비 t+50년에 피부양 인구 증가율이 전체 인구 증가율보다 크다.
- ③ t년 대비 t+50년에 유소년 인구 감소율은 12.5[= {(160-140) / 160} × 100]%이고, 유소년 부양비 감소율도 12.5[= {(100-87.5) / 100} × 100]%이다.
따라서, t년 대비 t+50년에 유소년 인구 감소율과 유소년 부양비 감소율은 동일하다.
※ 유소년 부양비에서 분모에 해당하는 것은 부양 인구이다. 그런데, t년과 t+50년에 전체 인구 중 부양 인구수가 동일하므로 t년 대비 t+50년에 유소년 인구 감소율과 유소년 부양비 감소율은 동일하다.
- ④ 전체 인구에서 부양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t년(40%)이 t+50년(32%)보다 크다.
- ⑤ 부양 인구는 t년(160a명)과 t+50년(160a명)에 동일하다.

10 24학년도 6월 평가원 20번

정답 : ②

갑국의 $t+50$ 년과 $t+100$ 년의 총인구가 각각 t 년 총인구의 2배와 1.5배이므로 t 년의 총인구를 100명이라고 가정하면, $t+50$ 년과 $t+100$ 년의 총인구는 각각 200명과 150명이다. 갑국 총인구 중 부양 인구 비율은 t 년과 $t+50$ 년이 각각 40%, $t+100$ 년이 30%이므로 부양 인구는 t 년 40명, $t+50$ 년 80명, $t+100$ 년 45명이다.

노년 부양비는 $t+50$ 년이 75, t 년이 25이므로 노년 인구는 t 년 $10(=40 \times 0.25)$ 명, $t+50$ 년 $60(=80 \times 0.75)$ 명이다. 따라서, 유소년 인구는 t 년 50명, $t+50$ 년 60명이다. $t+100$ 년의 노령화 지수는 250이므로 노년 인구는 유소년 인구의 2.5배이다. $t+100$ 년에 노년 인구와 유소년 인구의 합은 105명이므로 노년 인구는 75명, 유소년 인구는 30명이다.

(단위 : 명)

	t년	t+50년	t+100년
노년 인구	10	60	75
부양 인구	40	80	45
유소년 인구	50	60	30
총인구	100	200	150

〈선지 분석〉

① $t+50$ 년의 총부양비[$150(=120/80 \times 100)$]는 t 년의 총부양비[$150(=60/40 \times 100)$]와 같다.

※ $t+50$ 년과 t 년의 총인구 중 부양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같으므로 총부양비는 같을 수밖에 없다.

② $t+50$ 년의 노령화 지수[$100(=60/60 \times 100)$]는 t 년[$20(=10/50 \times 100)$]의 5배이다.

③ $t+50$ 년의 부양 인구(80명)는 t 년(40명)에 비해 $100[(80-40)/40]\%$ 증가하였다.

④ 유소년 인구는 t 년(50명), $t+50$ 년(60명), $t+100$ 년(30명) 중 $t+100$ 년에 가장 적다.

⑤ 유소년 부양비는 t 년[$125(=50/40 \times 100)$], $t+50$ 년[$75(=60/80 \times 100)$], $t+100$ 년[$66.66 \dots (=30/45 \times 100)$] 중 t 년이 가장 크고, $t+100$ 년이 가장 작다.

11 24학년도 9월 평가원 20번

정답 : ⑤

전체 인구는 유소년 인구, 부양 인구, 노년 인구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A+B+C$ 는 100%이다. 갑국에 t 년의 경우 $B+C/A=2/3$ 이므로 $B+C$ 의 비율이 40%, A 의 비율이 60%이다. C 의 비율이 B 의 비율의 3배이므로 B 의 비율은 10%, C 의 비율은 30%이다. 갑국에서 t 년의 유소년 부양비는 50이므로 A 는 부양 인구, C 는 유소년 인구이다. 따라서 B 는 노년 인구이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풀면 갑국에 $t+50$ 년의 경우 $B+C$ 의 비율이 50%, A 의 비율이 50%이고, C 의 비율이 B 의 비율의 $3/2$ 배이므로 B 의 비율은 20%, C 의 비율은 30%이다.

을국에 t년의 경우 B+C의 비율이 35%, A의 비율이 65%이고, C의 비율이 B의 비율의 6배이므로 B의 비율은 5%, C의 비율은 30%이다. t+50년의 경우 B+C의 비율이 50%, A의 비율이 50%이고, C의 비율이 B의 비율의 3/2배이므로 B의 비율은 20%, C의 비율은 30%이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갑국과 을국에 t년과 t+50년의 인구 구성 비율은 다음과 같다.

(단위 : %)

	갑국		을국	
	t년	t+50년	t년	t+50년
노년 인구(B)	10	20	5	20
부양 인구(A)	60	50	65	50
유소년 인구(C)	30	30	30	30

t년 대비 t+50년에 갑국에서 유소년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변하지 않았는데, 갑국의 유소년 인구는 10% 감소했으므로 t년 대비 t+50년에 갑국 전체 인구는 10% 감소했음을 알 수 있다. t년 대비 t+50년에 을국에서 유소년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변하지 않았는데, 을국의 유소년 인구는 20% 감소했으므로 t년 대비 t+50년에 을국 전체 인구는 20% 감소했음을 알 수 있다. t년에 갑국과 을국의 전체 인구는 동일하다는 단서까지 종합해서 t년에 갑국과 을국의 전체 인구를 각각 1,000명으로 가정했을 때, 갑국과 을국에서 t년과 t+50년의 인구 구성은 다음과 같다.

(단위 : 명)

	갑국		을국	
	t년	t+50년	t년	t+50년
노년 인구(B)	100	180	50	160
부양 인구(A)	600	450	650	400
유소년 인구(C)	300	270	300	240
전체 인구	1,000	900	1,000	800

<선지 분석>

- ① t년에 노년 부양비는 갑국 $\{(1/6) \times 100\}$ 이 을국 $\{(1/13) \times 100\}$ 의 2배가 아니다.
- ② t+50년에 유소년 인구는 갑국(270)이 을국(240)보다 많다.
- ③ t+50년에 갑국의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20%, 을국의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도 20%이다. 따라서 t+50년에 갑국과 을국 모두 초고령 사회이다.
- ④ 을국의 경우 t년에서 t+50년 사이에 노년 인구가 증가하고 유소년 인구가 감소한 것을 보았을 때,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갑국의 경우도 t년에서 t+50년 사이에 노년 인구가 증가하고 유소년 인구가 감소한 것을 보았을 때,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 ⑤ t년에 부양 인구는 을국(650)이 갑국(600)보다 많고, t+50년에 부양 인구는 갑국(450)이 을국(400)보다 많다.

12 24학년도 수능 20번

정답 : ④

갑국에서 t년의 경우 전체 인구 대비 15~64세 인구 비율이 50%이고, 노령화 지수를 보았을 때 유소년 인구가 노년 인구의 4배이므로 유소년 인구 비율은 40%, 노년 인구 비율은 10%이다. 갑국에서 t+50년의 경우 전체 인구 대비 15~64세 인구 비율이 60%이고, 노령화 지수를 보았을 때 유소년 인구가 노년 인구와 같으므로 유소년 인구 비율은 20%, 노년 인구 비율은 20%이다.

을국에서 t년의 경우 전체 인구 대비 15~64세 인구 비율이 50%이고, 노령화 지수를 보았을 때 노년 인구가 유소년 인구의 1.5배이므로 노년 인구 비율은 30%, 유소년 인구 비율은 20%이다. 을국에서 t+50년의 경우 전체 인구 대비 15~64세 인구 비율이 55%이고, 노령화 지수를 보았을 때 노년 인구가 유소년 인구의 2배이므로 노년 인구 비율은 30%, 유소년 인구 비율은 15%이다. 제시된 자료를 통해 갑국과 을국의 t년과 t+50년의 인구 구성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단위 : %)

	갑국		을국	
	t년	t+50년	t년	t+50년
노년 인구(65세 이상 인구)	10	20	30	30
15~64세 인구	50	60	50	55
유소년(0~14세 인구)	40	20	20	15

t년에 갑국과 을국의 전체 인구는 동일하고, t년 대비 t+50년에 갑국의 전체 인구는 10% 감소하였으며, 을국은 전체 인구는 20% 감소하였다는 단서를 통해 t년에 갑국의 전체 인구를 1,000명이라고 할 때, 갑국과 을국의 t년과 t+50년의 인구는 다음과 같다.

(단위 : 명)

	갑국		을국	
	t년	t+50년	t년	t+50년
노년 인구(65세 이상 인구)	100	180	300	240
15~64세 인구	500	540	500	440
유소년(0~14세 인구)	400	180	200	120
전체 인구	1,000	900	1,000	800

〈선지 분석〉

- ① 함께 출산율을 보았을 때, t년과 t+50년 모두 저출산 현상은 을국이 갑국에 비해 강하게 나타난다.
- ② t년에 갑국은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10%이므로 초고령 사회가 아니다.
- ③ t년 대비 t+50년의 노령화 지수 증가율은 을국 $[33.33\cdots\{=(200-150)/150\}]$ 이 갑국 $[300\{=(100-25)/25\}]$ 보다 작다.
- ④ t년에 을국의 유소년 인구(200)는 t+50년에 갑국의 유소년 인구(180)보다 많다.
- ⑤ t년에 노년 인구는 을국(300)이 갑국(100)의 3배이고, t+50년에 노년 인구는 을국(240)이 갑국(180)의 1.33...배이다.

13 25학년도 6월 평가원 20번

정답 : ㄴ, ㄹ

갑국의 $t+50$ 년의 인구는 t 년의 2배이고, 을국에서 $t+50$ 년의 인구는 t 년의 3배인데, t 년 갑국과 을국의 전체 인구는 같으므로 갑국의 t 년 전체 인구를 $100a$ 명으로 가정하면, 갑국의 $t+50$ 년 전체 인구는 $200a$ 명, 을국의 t 년과 $t+50$ 년의 전체 인구는 각각 $100a$ 명, $300a$ 명이다.

갑국의 t 년 전체 인구 대비 노년 인구 비율은 10%, 노령화 지수는 20이므로 전체 인구 대비 유소년 인구 비율은 $50(= 10 \times 100/20)\%$ 이다. 따라서 전체 인구 대비 부양 인구 비율은 40%이다. 갑국의 $t+50$ 년 전체 인구 대비 노년 인구 비율은 35%, 노령화 지수는 140이므로 전체 인구 대비 유소년 인구 비율은 $25(= 35 \times 100/140)\%$ 이다. 따라서 전체 인구 대비 부양 인구 비율은 40%이다.

을국의 t 년 총부양비는 100(\rightarrow 유소년 인구 + 노년 인구 / 부양 인구 = 1 \rightarrow 유소년 인구 + 노년 인구 = 부양 인구)이므로 전체 인구 대비 부양 인구 비율은 50%이다. 전체 인구 대비 노년 인구 비율이 10%이므로, 전체 인구 대비 유소년 인구 비율은 40%이다. 을국의 $t+50$ 년 총부양비는 100이므로 전체 인구 대비 부양 인구 비율은 50%이다. 노령화 지수는 100(\rightarrow 노년 인구 / 유소년 인구 = 1)이므로 전체 인구 대비 노년 인구 비율과 유소년 인구 비율은 같다. 따라서 전체 인구 대비 노년 인구 비율과 유소년 인구 비율은 각각 25%이다. 이를 바탕으로 갑국 전체 인구를 $100a$ 명이라고 가정했을 때 국가별, 시기별 인구 구성은 다음과 같다.

(단위 : 명)

	갑국		을국	
	t년	t+50년	t년	t+50년
노년 인구	$10a(= 100a \times 10\%)$	$70a(= 200a \times 35\%)$	$10a(= 100a \times 10\%)$	$75a(= 300a \times 25\%)$
부양 인구	$40a(= 100a \times 40\%)$	$80a(= 200a \times 40\%)$	$50a(= 100a \times 50\%)$	$150a(= 300a \times 50\%)$
유소년 인구	$50a(= 100a \times 50\%)$	$50a(= 200a \times 25\%)$	$40a(= 100a \times 40\%)$	$75a(= 300a \times 25\%)$
전체 인구	$100a$	$200a$	$100a$	$300a$

<선지 분석>

ㄱ. ㉠은 25, ㉡은 $25(= 10a/40a \times 100)$, ㉢은 $150(= 60a/40a \times 100)$, ㉣은 $150(= 120a/80a \times 100)$ 이다. 따라서 ㉠과 ㉡은 같고, ㉢과 ㉣은 같다.

ㄴ. 을국의 $t+50$ 년 부양 인구(150a명)는 갑국의 t 년 유소년 인구(50a명)의 3배이다.

ㄷ. t 년 노년 부양비의 경우 갑국 $25(= 10a/40a \times 100)$, 을국 $20(= 10a/50a \times 100)$ 으로 갑국이 을국보다 크다. $t+50$ 년 유소년 부양비의 경우 갑국 $62.5(= 50a/80a \times 100)$, 을국 $50(= 75a/150a \times 100)$ 으로 갑국이 을국보다 크다.

ㄹ. 갑국($10a \rightarrow 70a$)과 을국($10a \rightarrow 75a$) 모두 t 년 대비 $t+50$ 년에 노년 인구가 증가하였으므로 노년 인구를 대상으로 한 복지 지출의 필요성이 커졌다.

14 25학년도 9월 평가원 20번

정답 : ②

〈조건 1〉에 따르면 갑국 t년의 유소년 인구는 부양 인구의 50%이고 노년 인구의 3배이므로 전체 인구 중 노년 인구 비율을 x%라고 가정했을 때, $(3x+6x+x)\% = 100\%$ 이다. 따라서 x는 10이다.

〈조건 2〉와 〈조건 3〉에 따르면 t년 → t+30년 → t+50년으로 시간이 흐르면서 전체 인구의 변화는 없음을 알 수 있다.

A 시기 전체 인구 중 유소년 인구 비율은 감소하였고, 전체 인구 중 부양 인구 비율은 변화가 없으므로 전체 인구 중 노년 인구 비율은 전체 인구 중 유소년 인구 비율의 감소치만큼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B 시기 전체 인구 중 유소년 인구 비율과 전체 인구 중 부양 인구 비율이 모두 감소하였으므로 전체 인구 중 노년 인구 비율은 전체 인구 중 유소년 인구 비율의 증가치와 부양 인구 비율의 증가치의 합만큼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유소년 부양비가 증가한 것을 통해 t+30년 대비 t+50년으로 인구 변화 양상을 예측했을 때 유소년 인구의 감소율보다는 부양 인구의 감소율이 더 높음을 알 수 있다(가파르게).

이를 바탕으로 갑국 t년의 전체 인구를 100a명으로 가정했을 때 시기별 인구 구성은 다음과 같다.

(단위 : 명)

	t년	t+30년	t+50년
노년 인구	10a	t년보다 증가	t+30년보다 증가
부양 인구	60a	60a	t+30년보다 감소
유소년 인구	30a	t년보다 감소	t+30년보다 감소
전체 인구	100a	100a	100a

〈선지 분석〉

① A 시기에는 피부양 인구가 증가하지 않을 것이다(t년과 t+30년에 40a명으로 동일).

※ 전체 인구는 부양 인구와 피부양 인구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인구 중 부양 인구 비율의 변화가 없음을 통해서도 해당 선지가 틀렸음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② B 시기에는 1) t+30년에 부양 인구가 유소년 인구보다 많은 점, 2) t+30년 대비 t+50년에 유소년 인구의 감소율보다 부양 인구의 감소율이 높은 점을 통해 유소년 인구보다 부양 인구가 더 많이 감소할 것임을 알 수 있다.

※ 반드시 두 가지 모두를 확인해야 합니다. 2번이 충족되더라도, t+30년에 부양 인구가 유소년 인구보다 적다면 유소년 인구보다 부양 인구가 더 많이 감소할 것임을 확신할 수 없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③ 〈조건 4〉에 따르면, 세대 간 갈등은 노년 부양비에 비례한다. B 시기에 전체 인구 중 부양 인구 비율은 감소하고 노년 인구 비율은 증가하므로 노년 부양비는 t+30년보다 t+50년이 더 크다. 이를 보았을 때 세대 간 갈등이 A 시기보다 B 시기에 더 심각할 것이다.

④ t년의 총부양비와 t+30년의 총부양비는 $(40/60) \times 100$ 으로 같다.

※ 전체 인구 중 부양 인구 비율의 변화가 없음을 통해서도 바로 도출해낼 수 있습니다.

⑤ A 시기와 B 시기에서 부양 인구는 계속 증가하므로 t+50년의 노년 인구는 t년보다 많고 t+30년보다도 많다.

15 25학년도 수능 20번

정답 : ③

갑국 t년의 부양 인구(15~64세 인구)는 노년 인구(65세 이상 인구)의 7배이며, 노령화 지수는 50이므로 갑국 t년의 전체 인구 중 노년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을 x%라고 하면, 부양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7x%, 유소년 인구(0~14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2x%이다. 따라서 갑국 t년의 전체 인구 중 노년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10%, 부양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70%, 유소년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20%이다.

A 기간과 B 기간 동안 전체 인구의 변화는 없으므로 갑국 t년, t+30년, t+50년의 전체 인구를 모두 100a명으로 둘 수 있다. t년의 노년 인구는 10a명, A 기간 동안 노년 인구 증가율은 100%이므로 t+30년의 노년 인구는 20a명이다. B 기간 동안 노년 인구 증가율이 50%이므로 t+50년의 노년 인구는 30a명이다.

t년의 노령화 지수는 50, A 기간 동안 노령화 지수 증가율은 60%이므로 t+30년의 노령화 지수는 80이다. 따라서 t+30년의 유소년 인구는 25a명이고, 그로 인해 부양 인구는 55a명이다. B 기간 동안 노령화 지수 증가율은 50%이므로 t+50년의 노령화 지수는 120이다. 따라서 t+50년의 유소년 인구는 25a명이고, 그로 인해 부양 인구는 45a명이다.

이를 바탕으로 갑국 t년의 전체 인구를 100a명이라고 가정했을 때 시기별 인구 구성은 다음과 같다.

(단위 : 명)

구분	t년	t+30년	t+50년
노년 인구	10a	20a	30a
부양 인구	70a	55a	45a
유소년 인구	20a	25a	25a
전체 인구	100a	100a	100a

<선지 분석>

- ① A 기간에 유소년 인구(20a → 25a)와 노년 인구(10a → 20a)는 모두 증가하였다.
- ② B 기간에 부양 인구는 감소(55a → 45a)하고 노년 인구(20a → 30a)는 증가하였다.
- ③ A 기간(10a → 20a)과 B 기간(20a → 30a)에 증가한 노년 인구(10a)는 동일하다.
- ④ 유소년 부양비는 t+30년이 $(25/55) \times 100$, t+50년이 $(25/45) \times 100$ 으로 유소년 부양비는 t+50년이 t+30년보다 크다. 따라서, 유소년 부양비와 정(+)의 관계에 있는 양육에 대한 사회적 부담 정도는 t+50년이 t+30년보다 크게 나타난다.
- ⑤ 부양 인구는 t+30년이 55a명, t+50년이 45a명으로 t+50년이 t+30년이 작으므로 부양 인구와 부(-)의 관계에 있는 노동력 부족 정도는 t+50년이 t+30년이 크다. 노년 부양비는 t+30년이 $(20/55) \times 100$, t+50년이 $(30/45) \times 100$ 으로 t+50년이 t+30년보다 크므로 노년 부양비와 정(+)의 관계에 있는 세대 간 갈등 정도는 t+50년이 t+30년이 크다.